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이  
피부인식 및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선호식품에 따른 피부인식과 피부관리-

2021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유 나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명광주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이  
피부인식 및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선호식품에 따른 피부인식과 피부관리-

The Effects of the Eating Habits of Korean and Chinese  
Women on their Skin Perception and Skin Care Behavior  
- Skin Perception and Skin Care According to  
Preferred Food -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유

나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명광주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이  
피부인식 및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선호식품에 따른 피부인식과 피부관리-

The Effects of the Eating Habits of Korean and Chinese  
Women on their Skin Perception and Skin Care Behavior  
- Skin Perception and Skin Care According to  
Preferred Food -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유

나

유나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이 피부인식 및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선호식품에 따른 피부인식과 피부관리-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뷰 티 에 스 테 틱 전 공  
유 나

이 연구는 한국여성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이 선호식품에 따라 피부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피부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는 선행연구된 학술연구를 통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어떠한가?**

한국여성은 채식, 중국여성은 육식 비중이 매우 높았고, 양국의 여성들은 각 나라의 음식을 선호했다. 한국여성의 채식 재료는 곡류, 과일류와 나물류, 버섯류, 중국여성은 야채류, 곡류를 많이 먹으며, 한국여성은 돼지고기를,

중국여성은 소고기를 즐겨먹었다. 중국여성이 한국여성보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섭취가 더 많았고, 한국여성은 비타민, 녹차커피, 음료섭취가 중국보다 많았다. 또한 자극성고열량음식은 중국이 높았고, 한국여성은 미용음식을 추구하는 경향이였다.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각 나라 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에 선호식품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한국여성은 자신의 피부상태를 중성, 지성, 복합성, 건성, 중국여성은 지성과 복합성이라고 하여, 중국이 한국보다 지성, 복합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높았으나,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정도는 한국보다 중국여성이 더 높았다. 피부상태 영향요인으로는 자연적인 노화, 생활습관 등을 들었으나 양국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여드름 등 피부알러지가 생기는 정도와 민감성피부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한국여성이 중국보다 더 높았다. 자외선 차단제나 정기적 피부관리, 식이요법 등 피부타입별 피부관리 등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한국이 중국여성보다 더 높았다.

한국여성은 중국여성보다 채식의 경우 중성, 육식의 경우에 지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한식이 중성음식인 반면, 중식은 지성음식이라고 인식하였다. 건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한국여성은 해조류를, 중국여성은 해조류와 곡류를 많이 섭취했다. 중국여성은 지성피부라고 인식하는 경우, 나물류, 예민성인 경우 버섯류를 즐겨먹으며, 육식 식재료 섭취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국여성은 곡류섭취가 피부상태에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버섯류는 피부상태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은 중국음식보다 양식이 피부상태에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중국여성은 식습관, 즐겨 먹는 음식,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서 피부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은 채식의 경우보다 특별히 가리지 않는 식성의 경우에 민감성피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중국여성은 채식의 경우에 특별히 가리지 않는

경우보다 더 피부결잡티, 민감성피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국여성은 양식이 수분탄력성과 민감성피부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여성은 민감성피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은 민감성피부의 경우에 야채류보다 과일류를 더 섭취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여성은 모두 육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인식은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여성은 음식에 따라 피부상태가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은 식습관에 따라 피부관리행동이 달라지는 경향이 적었으나, 중국여성은 채식을 하는 경우가 특별히 가리지 않는 경우보다 더 피부관리행동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여성은 중식을 즐겨먹는 경우에 전문적 관리를 받는 경향이 높았고, 중국여성은 즐겨먹는 음식에 따라 화장품사용, 전문적 관리, 생활습관 등 피부관리행동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여성은 육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의 차이가 없었으나, 중국여성은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먹는 경우가 전문적 관리를 받는 경향이 높았다.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은 선호식품에 따라 그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이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한국여성은 예민성피부의 경우에 화장품사용과 전문적 피부관리 경향이 높았으나, 중국여성은 피부유형에 따른 화장품사용과 전문적 피부관리 경향은 차이가 없었다.

한국여성은 피부상태가 좋을수록 화장품 사용, 전문적 관리, 피부타입관리, 생활습관, 피부관리행동에 적극적이거나, 중국여성은 피부상태가 약간 나쁜 경우보다 매우 좋은 경우에 피부타입관리에 적극적이었다. 단 한국여성은 피부상태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경우보다 만족하는 경우가, 더 적극적이었고, 중국여성은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 전문관리에 적극적이었고, 피부타입관리, 피부관리행동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와 매우 만족하는 경우에 더 적극적이었다. 피부타입관리는 만족하는 경우에, 그리고 피부관리행동 전체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에 더 적극적이

었다.

한국여성은 피부타입에 따라 피부관리행동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중국여성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피부타입관리, 자연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생활습관, 피부관리행동에 적극적이었다.

한국과 중국여성은 모두 자신의 피부에 대한 인식이 클 경우에 피부관리행동이 적극적이었다.

한국여성은 수분탄력성과 피부결잡티가 많은 경우 화장품사용과 전문적 관리 그리고 피부타입관리가 많고, 중국여성은 민감성피부와 수분탄력성 그리고 피부결잡티가 많은 경우에 피부타입관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은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가 많아질수록, 중국여성은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그리고 민감성 피부일수록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여성은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가 많아지면 피부관리행동이 적극적이고, 중국여성은 수분탄력성, 민감성, 피부결잡티가 많아질수록 피부관리행동이 적극적이므로써,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차이는 피부관리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식습관, 그리고 선호식품과 피부와의 관계를 연구한 이전의 결과의 연장선상의 결과들이나, 이제까지의 피부와 식습관 관련 연구는 식습관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식습관을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밖의 피부에 관련한 연구는 피부인식에 관련한 연구, 피부노화인식 관련 연구, 피부건강관리 관련 연구, 피부미용 관련연구, 피부문제에 관련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와 같이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이 선호식품에 따라 피부인식 및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학술적, 실무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식습관, 선호식품, 피부인식, 피부관리행동, 피부타입관리

#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1
1.2 연구문제 .....	3
1.2.1 <연구문제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어떠한가? .....	3
1.2.2 <연구문제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에 선호식품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1.2.3 <연구문제3>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이 피부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4
1.3 주요변수 및 술어의 조작적 정의 .....	4
1.3.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 .....	4
1.3.2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	5
1.3.3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관리행동 .....	5
1.4 연구개념 및 연구의 구성 .....	6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8
2.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과 선호식품 .....	8
2.1.1 한국과 중국의 식습관 .....	9
2.1.2 한국과 중국의 환경과 식품, 그리고 식생활 .....	10
2.1.3 식습관과 선호식품에 따른 피부영향 .....	14
2.2.3.1 식물성 식품과 피부 .....	17
2.2.3.2 동물성 식품과 피부 .....	17
2.2.3.3 젊은 여성의 피부타입 및 특성 .....	18
2.2.3.4 선호식품과 식습관에 따른 피부영향 .....	19
2.2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과 피부관리 행동 .....	22
2.2.1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	27
2.2.2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관리행동 .....	28



ABSTRACT ..... 114

## 표 목 차

[표 4-1] 영역의 신뢰성검증 .....	34
[표 4-2] 음식 성향 요인의 타당성 검증 .....	36
[표 4-3] 피부인식 요인의 타당성 검증 .....	37
[표 4-4] 피부관리행동 요인의 타당성 검증 .....	39
[표 4-5] 일반적 사항 .....	41
[표 4-6] 거주지역에 따른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 .....	42
[표 4-7] 거주지역에 따른 음식 성향 차이 검증 .....	44
[표 4-8] 거주지역에 따른 음식 성향 차이 검증 .....	45
[표 4-9]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인식 .....	46
[표 4-10]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	48
[표 4-11]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	48
[표 4-12]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49
[표 4-13]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50
[표 4-14] 거주지역별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에 따른 피부유형 .....	51
[표 4-15] 거주지역별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에 따른 피부상태 .....	54
[표 4-16] 거주지역별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에 따른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	56
[표 4-17] 거주지역별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	58
[표 4-18] 거주지역별 즐겨 먹는 음식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	59
[표 4-19] 거주지역별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	61
[표 4-20] 거주지역별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63
[표 4-21] 거주지역별 음식 성향과 피부인식 간의 관계 .....	64
[표 4-22] 거주지역별 식습관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65
[표 4-23] 거주지역별 즐겨 먹는 음식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67
[표 4-24] 거주지역별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69
[표 4-25] 거주지역별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71

[표 4-26] 거주지역별 음식 성향과 피부관리행동간의 관계 .....	73
[표 4-27] 거주지역별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74
[표 4-28] 거주지역별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76
[표 4-29] 거주지역별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78
[표 4-30] 거주지역별 피부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	80
[표 4-31]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 간의 관계 .....	82
[표 4-32]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화장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 .....	83
[표 4-33]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전문적 관리에 미치는 영향 .....	85
[표 4-34]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피부타입관리에 미치는 영향 .....	86
[표 4-35]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	88
[표 4-36]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피부관리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 .....	89

##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31
---------------------	----

# I. 서론

## 1.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우리의 피부는 먹는 음식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

예컨대, 채식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고 육식은 채식보다 덜 깨끗하고 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 것일까?

우리의 기억 속 대부분의 광고는 신선하고 깨끗한 자연 속의 식물로는 깨끗함을, 그리고 건강한 자연 속의 동물로는 튼튼함을 얻을 수 있음을 부각시켜왔다.

그래서일까? 여성들은 실제로 야채와 과일 몇 쪽만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예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행복해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와는 반대로 지글지글 고기를 구우며 큰 소리로 즐겁게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는 여성들의 얼굴과 피부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은 야채와 과일을 즐겨 먹는 여성들보다 덜한 것일까?

혹시 편향적인 식사로 인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영양섭취 때문에 피부 부작용은 없을까?

본 연구자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왔다.

여성들이 즐겨먹는 음식이나 식습관에 따라 피부모습이 정말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나 사실일까?

과연 먹는 음식과 피부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채식을 즐기는 여성과 육식을 즐기는 여성들은 실제 자신들의 피부에 음식이나 식습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식습관이나 선호 음식은 시대별, 환경과 지역별, 그룹이나 집단별, 풍습에 따라 다르지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나라별 차이가 아닐까 싶다. 각

나라는 자연환경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나 의식 등이 직간접적으로 식습관과 선호음식에 영향을 미친다. 기나긴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에 배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오랜 역사 속에서 교류를 거듭해왔던 한국과 중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여성들의 식습관은 어떠한지, 그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식품이 자신들의 피부인식이나 피부의 인식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음식이 중국음식보다 덜 기름지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 여성의 선호음식 성향은 중국여성의 음식 성향보다 더 채식지향적이고, 중국 여성의 선호음식 성향은 한국여성보다 더 육식지향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중국의 여성들은 폭넓게 작용해왔던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여성들의 얼굴이 밝고 깨끗하며 예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연구자가 오래도록 가져온 이러한 의문점들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 여성들의 식습관과 선호음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피부인식과 그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Myerson, L.,(1971)은 현대인들은 다양화한 사회환경 속에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며 적응노력을 거듭해나간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인 능력 외에도 외적인 외모를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즉 사람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대인관계나 비즈니스에서도 외모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임을 나타낸다.

피부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음식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왔으나 식습관에 따른

선호음식에 의해 여성들의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한 바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여성들의 식습관, 피부인식, 피부와 선호식품, 그리고 피부인식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이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층 분석한다.

명광주(2006)는 뷰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뷰티구매행동, 즉 뷰티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므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나타내는 의미는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까닭에 학술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여성을 위한 화장품, 뷰티케어 디바이스, 뷰티 마케팅, 뷰티서비스 및 관리 등의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지혜자산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 1.2 연구문제

한국과 중국, 양국 여성들의 선호음식과 식습관 분석을 바탕으로 그들의 피부인식이 어떠한가, 그리고 선호 음식과 식습관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을 밝혀내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핵심 연구문제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2.1 <연구문제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어떠한가?

1.2.2 <연구문제2>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에 선호식품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2.3 <연구문제3>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이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3 주요변수 및 술어의 조작적 정의

연구의 이해를 정확히 하고 연구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막기 위해 본 연구의 주요변수와 연구가 사용하는 몇몇 주요 술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1.3.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

식습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식생활에 관한 습관이나 즐겨먹는 방식을 말한다.

식습관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데, 그 영향요인은 개인의 의식이나 기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요인 또는 교육수준에 따른 지식과 정보 요인, 그리고 거주지역의 자연풍토나 사회문화적 요인, 또는 전통에 따른 환경요인 등등이다.

본 연구에서의 식습관이란, 한국과 중국의 여성들이 각 나라에서 그들 나름대로 익숙해져있는 음식을 먹는 방식이나 즐겨먹는 음식의 내용 영향 요인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적인 음식선호 습관 또는 선호경향, 즉 채식선호, 육식선호, 채식과 육식을 가리지 않는 식습관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선호식품은 그 음식의 주된 식자재 내용 또는 그 식자재를 이용하여 만든, 여성들

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1.3.2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피부인식은 피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즉 피부상태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는 균형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 부족하지 않은 영양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불균형한 영양에서 오는 피부의 문제들을 화장품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은 한국과 중국 각 나라의 여성들이 자신의 식습관에 따라 형성된 피부의 전반적인 상태, 즉 피부타입, 피부유형, 피부건강 정도, 피부의 색, 피부의 습윤정도, 피부의 트러블 정도, 피부의 아름다움이나 노화 정도, 피부의 탄력정도, 피부의 청결정도 등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1.3.3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관리행동

피부관리행동의 사전적 정의는 피부가 가진 기능을 충분히 기능하게 만듦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는 피부관리 행위를 말한다. 즉 피부노화나 피부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자신만의 피부보호를 위한 피부관리행동이다. 일반적인 피부관리 방법으로는 피부를 깨끗이 하기, 화장품으로 케어하기, 피부관리실 또는 피부병원에서의 관리와 처치, 수면 충분히 취하기와 가벼운 운동하기, 균형식으로 고른 영양섭취 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관리행동은 양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피부를 위해 어떠한 케어행동을 취하는가, 즉 피부관리를 위해 취하는 일체의 피부케어 행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1.4 연구개념 및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각 나라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채식, 육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첫째, 양국 여성들의 식습관 분석을 바탕으로,

둘째, 양국 여성들의 선호식품이 그들의 피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증하며,

셋째, 양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따라 그들의 피부인식과 피부인식이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분석과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 검증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는 총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의 자세한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은 연구필요성과 연구목적, 연구문제, 주요술어의 조작적 정의, 연구개념 및 연구의 구성, 연구범위 및 이미 연구가 이루어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과 선호식품,

양국의 식습관과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선호식품과 식습관에 따른 피부영향, 양국 여성들의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연구설계 부분은 연구모형과 가설, 조사참가자, 조사도구인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조사자료 수집방법, 설문조사자료의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연구결과 부분은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 세 가지에 따른 가설검증 결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결론 및 논의 부분은 전체 연구에 따른 결론, 즉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문헌분석과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조사 결과의 종합,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타내는 의미와 연구의 한계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과 선호식품

식습관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즐겨 먹은 음식이 친숙해짐으로써 생긴 후천적인 식생활 경향으로, 작게는 한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한 나라에 이르기 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식생활에 대한 기호나 특성, 음식에 대한 태도나 성향이다.

Shim et al.,(2013)은 식생활 습관은 개인의 어릴 때부터 지속한 식생활양식으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식생활의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순희와 이경옥(2011)도 같은 맥락으로 식습관을 정의하였는데, 그들은 개인이 어려서부터 음식을 먹어온 버릇, 즉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 온 생활양식으로 어느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식생활의 내용이라고 하였다.

박장혁(2012)은 식습관을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음식을 섭취하며 행동하는 습관을 의미하며, 개인의 선호맛, 선호음식, 식사속도, 섭취량, 식사자세 등을 포함하므로, 섭취한 음식의 전체 양이나 영양분의 양 등이 개인마다 영향을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여문비(2012)는 한 나라 사람의 식생활 습관은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고, 한편 이은숙(2009)은 식습관은 영아기 혹은 아동기에 형성되고 청소년기에 결정되어져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oelsmaet.,al(2003) 및 김기남(1982)은 피부문제는 생리적인 원인으로부터 기원하고 근원적인 식이에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식습관과 선호음식에 따라 피부에 영향이 달라진다고 주장, 식이방법과 내용에 따라 피부문제를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최미경(2000)은 적절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ee et al.,(2013)은 20대 여성의 식습관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여성의 미에 대한 인식 및 요구로 다이어트나 체중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Jung-Soon Han(2019)은 그의 연구에서 20대 전·후반 연령대 여성의 식생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다를 것이라고 예측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하면서, 20대 전반 연령의 여성이 20대 후반여성보다 '하루에 세끼 식사를 하며, 매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Park(2009)의 연구도 정상 체중군이 과체중이나 저체중에 비해 과일 채소, 우유, 해조류 등을 즐겨 섭취하고 짠 음식이나 화학조미료를 덜 섭취하며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도 적게 섭취하는 긍정적인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편식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 2.1.1 한국과 중국의 식습관

식습관은 개인의 성격, 직업, 가족특성, 경제수준, 종교, 문화, 가정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점점 더 편리하고 스피디함을 추구한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자연보다는 기술문명 속에서 여유로움보다는 시간에 쫓겨 살게 됨으로써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효율성을 요구받기에 간편식, 가공식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게되므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지 못하는 식습관을 갖게 되기 쉽다. 따라서 면역결핍이나 저항력 저하현상을 보이게 된다.

김정현 등(1991)은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적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특히 사회적 변수로서의 직업, 가족수, 사회경제수준, 영양정보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식습관과 선호식품에는 차이가 많다.

한국인의 식습관은 어떠한가?

엄완근(2016)은 한국인의 식습관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었으나, 경제발전 등의 영향으로 서구의 양식문화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인의 주식은 곡류, 부식으로는 다양한 채소이며, 밥, 국, 김치, 어육류와 나물 등이 기본이며, 육류, 생선, 콩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균형식을 하고 있으나, 구슬과 박경(2013)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핵가족화, 노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의 변화에 따라 햄버거나 피자 등 간편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인옥(2016) 등은 개인주의적인 식생활과 맛과 멋의 추구, 건강지향, 자연식 추구, 외식산업과 가공식품 발달에 의해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안효진(2015)은 빵, 라면 등 밀가루 가공식품의 소비도 많다고 하였다.

김주현(2007) 등은 한국인은 농업기술과 저장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일 년 내내 먹는다고 하였다.

중국인의 식습관은 어떠한가?

엄완근(2016)은 중국인의 전통 식습관은 식물성 위주이며, 주식은 오곡, 부식은 채소, 그리고 소량의 육류인데, 그 배경에는 경제생산 방식이 농업생산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며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고대의 재위자(황제)는 ‘육식자’라고 불렸다고 하고 있다.

풍부한 재료를 사용하는 중국음식은 기름에 튀기거나 볶거나 졸이거나 지지는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며, 중국인은 뜨겁고 익힌 음식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음식을 기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채소섭취가 적다고 하였다. 채소섭취는 볶아서 먹는다고 하였다.

물론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식습관은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 즉 생활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경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식습관은 자신이 오래도록 이어온 전통을 지키려는 경향이 크므로 쉽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하기 마련이다. 또한 선호음식은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영양 결핍은 피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1.2 한국과 중국의 환경과 식품, 그리고 식생활

하청(2004)은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문화권에 속해있으면서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지만, 음식문화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최미숙(2002) 등은 한국음식은 은근히 우리나라는 손맛을 중시하며, 동물성 기름을 피하고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하므로 조리한 후 식어도 음식의 변화가 적으며 다양한 조리법과 그 영양적 우수성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음식의 영양소 분석 결과 서구 음식보다 지방함량이 적으며 식이섬유가 많고 단백질과 무기질의 공급을 위해 부재료를 충분히 사용할 경우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식이라고 하였다.

강병남(2006)은 한국음식은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충분한 영양과 맛을 주므로, 서양의 육식 식생활이 암,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반면, 한국의 음식은 채식 위주이며 육식과 채식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아주 과학적인 음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나래(2007)는 한국음식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발효식품이 발달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음식을 살펴보면 날 것으로 먹는 경우는 드물며 장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효의 맛을 창출하는 음식이다. 이는 맛 뿐 아니라 수확기가 한정된 채소류를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용된 지혜로운 음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정옥(2005) 역시, 한국음식에는 김치가 있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하는데 있어 반드시 장류를 사용하며 밀반찬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제철에 장이나 젓갈을 담고 나물을 말리며 장아찌와 김장을 비롯한 저장식품을 사용한다고 하여 발효식품을 즐겨먹고 있다고 하였다.

임길희(2008)는 한국음식은 쌀,보리, 조, 콩, 팥, 수수 등으로 지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채소류, 해조류, 어패류, 수조육류, 콩류 등의 재료로 조리법을 달리하여 마련한 갖가지 반찬을 부식으로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반상은 밥과 반찬의 내용과 구성이 영양, 맛 등에서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배합 구성된 것이므로 한끼의 식사로서 분리할 수 없는 일체성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하청(2004)은 중국음식은 푸짐하고 기름진 특색을 지닌다고 하였다.

ZHENG WEI(2018)는 중국의 요리는 오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중국 속담 중에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民以食為天)”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이 음식에 관한 속담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은 넓은 영토와 바다가 있어서 식자재가 풍부하고, 각 지역마다 생활습관, 경제와 문화정도 차이,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리방식과 요리형식도 각 지역마다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지역마다 맛의 차이도 커서 남쪽의 광둥(廣東)요리는 달고, 수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상해요리는 담백한 편이며, 북쪽의 산둥성(山東)과 북경(北京)요리는 짠 편이며, 서쪽의 사천(四川)요리는 매운 맛이 강한 편이라고 하였다.

이정학(2007)은 “서양요리가 고기나 생선을 식재료로 쓰는 반면, 중국음식은 고기와 야채를 잘 조화시켜 섬세한 맛을 낸다(西菜主純, 中菜主和)”라고 하면서 중국음식은 조리시간이 짧고, 기름사용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영배 등(1999)은 중국음식의 공통된 특징을 풍부한 식재료로 손쉬운 조리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맛과 모양을 내는 풍부한 영양식이라고 하였다.

박장혁(2012)은 중국인들은 먹는 것을 일종의 학문과 예술로 여길 만큼 음식을 만들고 즐거움으로써, 뛰어난 요리기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식생활은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소득증가로 인해 식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2003)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식물성 식품중 곡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채소류, 과일, 해조류는 증가, 그리고 동물성 식품인 육류는 고기, 유류, 난류, 어패류가 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동물성 육류 섭취가 식물성 식품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복경(1997)은 곡류섭취는 대폭 감소한 반면, 과일, 육류, 유류 등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동물성 식품의 지방과다섭취로 인한 열량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활동량의 감소로 인한 각종 질병과 질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ZHENG WEI(2018)은 그의 연구에서 중국인은 마라(麻辣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사천(四川)요리를 가장 즐기며 그 다음 동북(东北)요리, 후난(湖南)요리, 산둥(山东)요리, 광둥(广东)요리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맛은 매운맛(40.5%), 단맛(28.4%), 짠맛(17.3%)등의 순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가능하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체로 도시에서는 아침으로는 긴짜배기 모양의(油條 혹은 이와 유사한 油香)이라고 하는 튀긴 밀가루 전병이나 만두(包子), 그리고 중국식 두유(豆乳), 빵 또는 국수 등을 먹으며, 저녁은 밥과 빵을 먹는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인은 따뜻한 차를 즐기며 육류와 생선을 가장 선호하고 육류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선호하며, 볶음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인은 밥에 찱기가 적으므로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서, 탕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한다.

오늘의 한국과 중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점차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기본요건이 올바른 식생활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근래에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과거에는 채식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채식주의 식이요법에 관한 연구들이 늘고 있다(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2004).

한국의 보건복지부(2003)도 동물성지방 및 포화지방의 과다섭취보다는 야채, 과일, 섬유질 섭취가 질병발생을 낮춘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여성들은 건강을 이유로 육식보다 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들이 남자 32%보다 여성 68%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ale Group, 2002).

한국 20대 여성들 역시 남성보다 과일, 버섯, 해조류 등 식물성식품의 섭취가 크게 높고, 동물성 식품의 유류섭취도 남성보다 크게 높다고 하고 있음으로써, 여성들이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Adchannel(2004) 조사는 젊은이는 육식 선호가 높고, 나이가 들수록 채식 선호가 높다고 하였다.

### 2.1.3 식습관과 선호식품에 따른 피부영향

우리 몸의 일부분인 피부를 이명선(2001)은 피부는 몸의 일부이므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건강도 있을 수 없으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피부는 림프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데 음식섭취를 통한 영양공급이 좋아야 피부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였다.

방동하(2007)는 피부가 인체의 표면을 싸고 있는 단순한 막이 아니라 인체 내 기관을 보호하는 가장 큰 기관이라는 해부학적 정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김명숙(2009)은 피부는 인체의 가장 큰 장기이며, 이 피부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 공급원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나 림프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피부조직이 이상적으로 기능하려면

피부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분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잘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명선(2001)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강지영(2013)은 좋은 식습관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유지에 중요하며, 좋지 않은 식습관은 서서히 복잡하게 피부에 그 영향이 나타나는데, 한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피부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자신의 피부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여드름, 피부타입은 복합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김해남(2000)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란 첫째,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있으며, 천연보습인자(naturalmoisturing factor, NMF)가 피부표면의 각질층의 수분(15-20%)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피부이며. 둘째, 탄력이 있어 피부 진피층의 섬유아세포들은 콜라겐 섬유,엘라스틴 섬유와 초기질물질을 만들어 진피내 수분을 만들어 주는 피부. 셋째, 피부색이 깨끗하고 투명하여 색소침착이 없는 피부. 넷째, 피부가 맑고 생기가 있어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원활한 피부라고 주장하였다.

Draelos(2006)는 피부가 표피(epidermis),진피(dermis),피하지방층(subcutis)의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김종규, 박봉선, 김중순(2011)은 좋은 피부의 상태를 중성피부(정상피부)로서 피부표면이 매끄럽고 윤기와 탄력이 있으며, 부드럽고 촉촉한 혈색이 좋고 건강미가 넘치는 피부라고 하면서, 각질층의 수분이 10-20%인 피부의 생리적 기능 및 피부조직의 상태를 이상적인 피부라고 하였다.

국홍일(1993)은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균형적인 영양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고당질은 피부 수분량을 증가시키고, 자극에 민감한 피부로 만들며, 세균감염과 피지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희와 정원정(1999)은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잔

주름이 생기게 되며,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색소침착이나 건성화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최미선(2005)은 영양결핍은 세포 외액을 증가시켜 부종을 일으키거나 무기질 부족현상을 일으켜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과식이나 지나친 설탕섭취, 짜거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여드름을 유발하며, 균형을 잃은 편식은 피부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미영과 서경현(2009)도 역시 피부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하고, 피부에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희와 정원정(1999)역시 여성들은 피부건강을 위해 적절한 영양섭취 대신 화장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은영(2005)도 피부가 건강해 지려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야하고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부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깨끗한 세척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체내 건강과 피부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성분의 충분한 공급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여 영양성분과 피부의 연관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강지영(2013)은 피부건강을 위해 수분, 수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은 피부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흡수를 도와주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많은 연구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음식의 영양성분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는 영양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2.2.3.1 식물성 식품과 피부

이명희(2011)는 해조류 등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주므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야채나 과일 등의 알칼리성 식품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명선(2001)은 그의 연구에서 한국의 20-30대 여성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이, 도시여성보다 농어촌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여성이 건강상태가 나쁜 여성보다 채식을 더 선호한다고 하면서, 과일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섭취, 7회, 5-6회, 1-2회 순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과일을 주 3-6회 정도 섭취하는 경우 건성피부인 여성이 많았고, 주 1-2회나 7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는 복합성 피부가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여성들이 피부건강을 위해 과일, 야채, 해조, 생선 순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연령대가 낮은 여성이 과일은 더 많이 섭취하고, 해조류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는 과일, 대졸이상은 해조류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채식을 많이 할수록 건성피부가 많았고, 채식을 적게 할수록 복합성피부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여성들은 식물성 식품이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동기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 2.2.3.2 동물성 식품과 피부

이명희(2011)는 많은 연구들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와 당도가 높은 음식이 피지 분비를 자극하여 지성피부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것들이 피지선을 자극하여 유분을 과잉분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카페인, 소다수, 초콜릿,

튀김, 조개 등의 해산물이 피지분비를 촉진하여 피부를 지성화 하므로 피부트러블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면서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는 불포화지방산으로 적당하게 섭취해야 피부질환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필수지방산은 피부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케라틴으로 구성된 피부는 피부의 각질, 털, 손톱과 발톱 성분인 황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테인(Cystein), 메치오닌(Methionine) 등의 아미노산은 동물성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부영양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하였다. 시스테인은 건성피부에 탁월하고, 메치오닌은 지성피부의 피지선 과다분비를 정상화시켜 피부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희숙과 김혜영(1995) 역시, 지방질의 과다는 남성호르몬의 과다분비를 자극하여 과다한 피지를 분비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명선(2001)은 한국의 20-30대 여성들은 육류와 기름기가 많은 동물성 음식을 비교적 즐겨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름을 넣어 조리한 음식을 주 1-2회나 5-6회 정도 섭취하는 경우는 건성피부, 3-4회나 7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는 복합성피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물성 식품섭취가 많을수록 기미가 많았고, 동물성 식품섭취가 적을수록 주근깨나 피부색소침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으로써 동물성 음식 섭취가 피부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동물성 식품은 여성의 피부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도 동물성 식품섭취보다 식물성 식품섭취가 피부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3.3 젊은 여성의 피부타입 및 특성

이명희(2011)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이루어지며, 표피는 진피층에

있는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피부의 윤택함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피부는 수분과 유분의 양에 따라서 건성, 지성, 중성,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지영(2013)은 사람들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 밝은 톤의 피부, 주름이 적은 피부, 피지 분비가 적은 피부, 부드러운 피부, 모공이 적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김종규, 박봉선, 김중순(2011)은 건강한 중성피부는 20세 이전의 노화가 진행되기 전의 젊은 연령층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건강한 중성피부는 피지선과 한선을 비롯하여 피부의 전반적인 기능이 정상이어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상태이지만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다른 피부유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안면부위는 신체 다른 부위보다 혈관이 많고 피지선이 많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 피지분비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피부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Antoniou et al., 2010 ; Baumann, 2006)고 주장하였다.

이명선(2001)은 한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피부상태를 보통, 나쁘다, 좋다는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고, 건성, 복합성, 지성, 예민성, 중성, 여드름성 등의 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의 여성들은 피부의 유형을 건성, 지성, 중성, 복합형으로 나누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자신의 피부가 그 중 하나의 유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2.3.4 선호식품과 식습관에 따른 피부영향

최정숙(1997)은 여성의 선호식품과 식습관, 그리고 피부관리 습관이 피부건강 관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곽하나(2011)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이루는 영양의 섭취가 피부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오인(2012)은 피부는 신체의 일부분이므로 환경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개인 생활습관이나 피부관리 태도, 행동에 따라 피부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피부관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미선(2005)도 피부의 아름다움은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피부표면의 상태, 나이, 식습관, 계절, 심신의 편안함과 영양 등의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식습관에 따라 피부상태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양미영(2009)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여성의 경우보다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서 지성 피부가 더 많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피부가 건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여성의 피부가 지성피부, 민감성피부가 많음으로써, 기름진 음식이 피부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일수록 지성피부와 민감성피부가 많았고,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보다 직업을 가진 여성이 노화성 피부가 더 많고, 기혼 여성들보다 미혼여성들에게서 지성피부와 민감성 피부가 더 많았다고 하였다.

이명희(2011)는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식사에 의한 균형이 잡힌 영양상태의 피부는 정상적인 피부색을 가진 부드러운 탄력성이 있는 피부인데, 음식을 고르게 섭취할수록 중성타입의 이상적인 피부상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이 피부건강에 해로우므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주름개선, 피부보습, 피부영양개선을 위한 미용을 위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개념의 먹는 화장품으로서의 식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명선(2001)은 젊은 직장 여성들은 주로 쌀밥, 잡곡밥, 콩밥, 보리밥을 선호했고, 미혼여성은 기혼여성에 비해 쌀밥섭취가 더 많았으며, 중소 도시에 사는 건강이 좋은 여성이 식품영양에 대한 지식도 많았다고 하였다. 미혼여성은 기

혼여성보다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20-30대 건강상태가 나쁜 여성의 경우 쌀밥을 섭취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채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혼보다 미혼이 적게 하고 있으며, 대졸이상보다 고졸이하가 덜 섭취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자극적인 음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보다 미혼이,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재균(2015)도 정도차이는 있으나 사람마다 다른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변화가 피부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맵고 짠 음식, 커피 등 자극성 음식은 피비분비를 증가시키고, 고르지 못한 편식습관은 특정 비타민 결핍을 초래함으로써 피부보습 기능이 저하하거나 색소침착을 촉진하며, 지방질이 음식은 피지분비가 정상 이상으로 분비가 과다해져 지성피부를 만들게 되는 등 육류 섭취가 많은 경우는 지방질 섭취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윤여성(2000)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섭취는 중추신경을 자극하게 되므로 피부도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어 남성호르몬 과다분비를 초래, 피지분비를 과다하게 하므로 피부를 지루성피부나 여드름피부로 만드는 원인이 되며, 대사활동에 지장을 가져와 피부가 과민한 상태가 되어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배지현(2010)은 성별에 따른 식품기호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불고기나 육개장, 깻잎기, 설렁탕, 부대찌개, 소시지 볶음, 돈까스, 치킨, 돼지갈비, 소갈비, 피자, 햄버거 등 동물성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홍양희(2003)는 그의 연구에서 식품선호도와 피부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성피부가 많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는 지성피부나 복합성피부가 많다고 하므로써, 규칙적인 식사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성피부를 가진 사람은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과일, 야채, 비타민을 복용 경향이 있었으며, 건성피부를 가진 사람은 편식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많았고, 해조류와 녹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홍양희는 불규칙한 식습관이 피부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건

강피부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성피부를 가진 사람은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 중에는 지성피부인 사람이 건성피부를 가진 사람보다 다소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밀가루, 인스턴트식품, 단 음식, 육식,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거나, 우유나 녹차, 비타민이 부족할수록,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좋아할수록 피지분비가 많아지며, 과일이나 채소를 좋아할수록 피부가 민감해진다고 주장하였다.

피부의 촉촉함은 고열량 음식을 피할수록, 우유나 녹차, 그리고 비타민이 충분할수록 더 촉촉해지며, 고열량 음식을 피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좋아할수록 피부탄력이 커진다고 하였다.

한편 농약이 많은 채소나 커피, 홍차, 녹차의 카페인을 기미 생성을 촉발하고, 파셀리나 샐러리 등은 피부의 색소침착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피부에 음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음식 영양성분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통된 정보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2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과 피부관리 행동

피부인식은 피부를 알고 의식하며, 판단하는 것이다.

이승자 외(2011)는 피부 인식을 피부 유형, 피부 상태, 피부문제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한유리(2017)는 주관적인 피부중요도, 관심도, 만족도를 피부인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부인식이란 자신의 피부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수(2013)는 피부관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행위로서 여성의 외적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수단이기애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자신의 피부유형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습관, 피부관리 행위, 피부건강교육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원(2018)은 20-30대는 활동력이 많고 새로운 변화가 급격이 증가하는 시기로서 식습관과 사회활동으로 인해 민감성 피부가 많고, 복합성 피부로써 피지량과 유수분의 변화가 올 수 있으며,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여드름의 증가를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배재균(2015)은 20대 초반 여성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지만, 계절과 건강상태에 따라 지성이나 건성피부로 변화하기 쉽다고 하였다. 20대 중반이 되면서는 피비량이 가모하여 눈, 볼, 입 주변에 건조함이 생기고 잔주름과 기미, 착색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는 20~29세 젊은 여성들이 피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고, 피부미용행위도 활발하다고 하면서, 나이가 많은 여성보다 식습관이 더 규칙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영희(2012)는 20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모공이 넓어지고 세안을 잘 해주지 않으면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나 블랙헤드가 생기며, 30대 피부는 피부컨디션 변화가 심하고 피부노화로 인한 피부건조가 일어나며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뚜렷해지는 등 노화의 징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우리 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하는 여성의 욕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마침내 에스 테틱(Aesthetic)분야의 뷰티기술을 발전시켰고, 오늘의 사람들 대부분이 외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깨끗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피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다.

최종원(2018)은 경제 성장과 삶의 여유로 인해 뷰티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응을 위해 여성이 외모적인 경쟁력을 가져야했다고 하였다. 그는 2016년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여성이 남

성에 비해 외모에 관한 인식이 높았으며, 29세 이하의 여성이 관심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였다.

가오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류인균 교수팀 조사에서 한국 여대생들의 78%가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여성들이 외모에 관심은 대단히 크다. 이처럼 여성들의 외모관리의 중요성은 제일기획(2010)이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으로써, 여성들은 외모개선을 위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서정민, 2011).

중국도 마찬가지로 2001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후 시장이 급속하게 개방되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박미성, 2010),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강지영(2013)은 과거에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한 반면, 현재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 이미지가 자기만족과 대인관계 등에서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연령을 불문하고 여성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외모관리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였다.

이태화(1990) 역시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대인관계 유지에 필요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김으로써, 깨끗한 피부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려는 여성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숙경 외(1998)도 성별과 연령 제한없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피부의 건강을 중요하게 인식함으로써,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 등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내면적인 피부건강관리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강지영(2013)은 사람들은 야채나 과일을 챙겨먹는 것, 짜지 않게 먹는 것, 군것질을 하지 않는 것,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먹는 것, 우유와 유제품을 먹는 것,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 것을 좋은 식습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좋은 식습관이 건강한 피부관리행동을 하게 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식습관이 전해지며 고열량과 지방질이 많은 음식이나 인스턴트식품, 냉동식품, 빵 등을 즐기는 경우가 늘어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균형감 있는 건강을 위하여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는 피부세포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로서 피부영양은 식습관이나 선호식품에 영향을 받게 되고, 피부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지성, 건성, 중성, 복합성, 민감성 등으로 분류한다(강지영, 2013).

김병우(1998)는 사람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리학적인 노화가 진행되며, 콜라겐 섬유의 감소로 인해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탄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기연(1997) 등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탄력이 감소하여 잔주름이 생기고 진피층과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약화됨으로써, 피부탄력은 물론 저항성이 낮아져 피부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비타민 결핍은 피부에 색소침착이나 건성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숙경(2000)은 건강한 피부는 피부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있으며, 탄력과 팽팽한 느낌을 가진 피부로서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럽고 촉촉하며,血色이 좋고 건강미가 있어야 하는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는 식생활과 운동, 휴식, 수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혜정(1996) 역시 이를 통해 피부가 가진 기능을 완전하게 유지하게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복희(1998)도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영양섭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진(2008)은 피부관리란 개인의 피부가 가진 문제를 개선하여 건강상태를 증진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며, 땀샘, 기름샘, 피부색, 혈액순환상태, 피부의 두께

등에 의해 나뉘는 피부타입은 피부의 건강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가변적인 것이므로 식습관이나 선호식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수현(2003)은 피부건강관리는 ‘피부가 가진 기능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해서 젊어보이는 피부상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과정’이라고 하였다.

김금란(2010)은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이후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경제, 문화적 수준 향상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심리적 요구가 증가하고, 웰빙현상의 사회적 확산으로 미용관련 서비스 산업의 급성장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신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은희(2013)는 화장품 사용이 늘고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가 단순한 미적인 요소를 뛰어 넘어 사회적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들이 시사하는 것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고르게 섭취해야하며, 피부별로 적당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과 중국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여성들은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한정순(2019)의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식습관과 식생활을 위해 과일과 채소류 같은 항산화식품 등 각종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식생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2.2.1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박옥향(2012)은 한국인의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른 피부자각상태와 피부관리 행동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박봉선(2011)은 한국 여성 20-30대는 복합성피부가 가장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육류, 난류, 콩류(두부·된장 포함),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유제품, 빵류·과자류·면류, 조개류, 스트푸드 섭취빈도가 낮을수록 건성피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좋아하는 맛에 따라서도 피부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짠맛과 단맛을 좋아하는 경우는 건성(각각 46.7%, 35.9%)이 많았으며 특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복합성(33.7%)이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배재균(2015)은 중국 산둥성 태안시 거주 여성들의 피부상태 인식과 피부건강관리행동 관련성 연구에서 20~39세 여성은 복합성피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피부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홍양희(2003)는 자신의 연구에서 중성피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가 자신의 피부가 촉촉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복합성피부, 지성피부, 건성피부 순으로 자신의 피부가 촉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지가 건조한 것은 피비분비가 적거나 수분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탄력에 대한 인식 역시 중성피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가 자신의 피부가 탄력이 있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복합성피부, 건성피부, 지성피부 순으로 자신의 피부가 탄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부의 탄력은 수분이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칙칙한 피부라는 인식은 복합성피부, 지성피부, 건성피부, 중성피부 순이며, 잡티가 많은 피부에 대한 인식은 지성피부, 복합성피부 순, 얼굴에 피

지가 많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지성피부, 복합성피부, 중성피부, 건성피부순, 모공이 크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지성피부, 복합성피부, 중성피부, 건성피부 순, 주름이 많은 것에 대한 인식은 복합성피부, 건성피부, 지성피부, 중성피부순, 여드름이 많은 것에 대한 인식은 지성피부, 복합성피부, 건성피부, 중성피부 순, 그리고 피부트러블이 많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지성피부, 복합성피부, 중성피부, 건성피부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과 중국 여성들은 자신이 어떠한 피부상태나 유형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음식이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식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2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관리행동

최종원(2018)은 여성의 직업은 피부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나이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피부에 대한 인식이 높고 피부건강관리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소패(2014)는 한국에서 피부관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YWCA에서 피부관리사라는 정규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피부관리분야가 성장하게 되었고, 1991년 대학의 피부미용과 개설과 2008년 미용사 피부자격증이 개설이후 더욱 발전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피부관리 궁극의 목표는 피부기능을 완전하게 해서 건강하고 젊게 보이는 피부상태가 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웅(2010)에 따르면 중국의 피부관리는 미용미발업법(美发业管理行动法) 제 1조에 피부미용을 미용(美容)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손 기술과 기기 설비를 활용하고 화장품, 미용 피부보호 제품 등을 사용하여 피부청결과 피부보호, 화장장식 등의 서비스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용미발업법 제2조는 미용을 스킨케어, 에스테틱의 의미로 사용하고, 헤어를

모발미용이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용사 자격은 관계기관이 승인한 자격증 획득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2010년 기준 교육부 인정 미용전문학교가 800개가 있으며, 그중 3년제 전문대학은 310개, 고등학교는 500여개가 있다고 하였다.

배재균(2015)은 중국의 20~39세 여성은 월 평균 4회 정도 피부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부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는 시간적 제약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이명희(2011)는 균형이 잡힌 영양상태의 피부는 정상적인 피부색을 갖고 있으며, 부드러운 탄력성을 갖게 되는데, 여성의 피부를 건성, 지성, 중성, 복합형으로 나누고, 각 피부의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건성피부는 피지와 각질층의 수분이 정상보다 부족한 상태로 피부가 얇고 모공이 작아 보이는 건조하고 윤기가 없는 피부로서 피부건조를 막기 위해 수분보충을 충분히 해야 하며, 유분과 수분 화장품과 영양성분이 있는 팩과 마사지가 필요하다. 중성피부는 피부가 곱고 윤기 있으며 탄력성이 있고 혈색이 좋은 이상적인 피부로서 규칙적인 기초손질로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성피부는 피지가 과다하여 모공이 크고 각질이 많으며, 여드름과 같은 피부트러블이 많으므로, 클렌징을 잘 해야 하는 피부이다. 복합성 피부는 이마와 코 부분에 피지가 많은 지성인 반면, 턱과 뺨은 건성인 피부로서 눈 주위가 건조하여 주름이 많은 피부이므로 이마와 코부분을 알코올 화장수로 닦아주고 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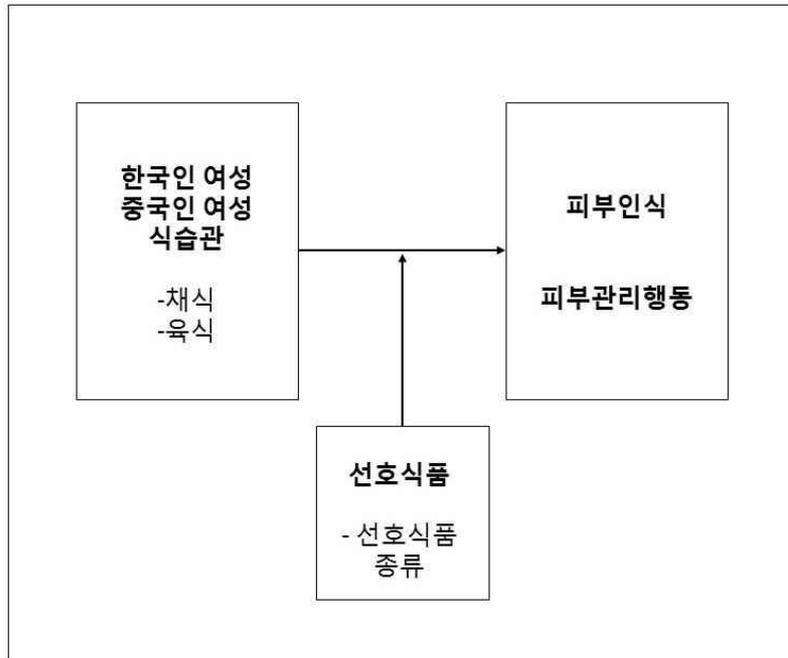
박봉선(2011)은 그의 연구결과 한국의 여성들은 세안을 하루에 2번, 3번 이상 순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집에서의 피부관리는 '1달에 1회'가 가장 많았고, 전문 피부샵에서의 피부관리는 '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았으며 '1달에1회', '주2~3회'의 순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영양을 고려한 식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먹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함으로써, 한국과 중

국의 여성이 자신의 피부상태, 피부유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피부관리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설계

###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개념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 3.1.1 <연구가설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각 나라 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다.
- 3.1.2 <연구가설2>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은 선호식품에 따라 그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다.
- 3.1.3 <연구가설3>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차이는 피부관리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조사 참가자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세 미만부터 31세 이상의 한국여성 179명, 그리고 중국여성 248명 등 총 427명이 참가하였다.

### 3.3 설문구성

본 논문의 실증조사를 위한 조사도구, 즉 설문은 총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영역은 첫째, 식습관과 선호식품에 관한 16개 문항, 둘째, 피부상태에 관한 14개 문항, 셋째, 피부인식에 관한 16개 문항, 넷째, 피부관리행동에 관한 14개 문항, 다섯째, 조사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6개 문항 등 총 6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선행연구들이 사용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이 증명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조정하여 구성하였는데,

첫째 영역의 설문은 黄美亨(2004), 朴奉仙.(2011), 홍양희.(2003)가 사용한 것이며, 둘째 영역의 설문은 이명희.(2010), 朴奉仙.(2011)이 사용한 것, 셋째 영역의 설문은 최종원(2017), 윤세희(2019)가 사용한 것, 넷째 영역의 설문은 가오인(2012), 오소패(2014) 다섯째 영역의 설문은 황선아(2018)가 사용한 것이다.

### 3.4 조사 및 자료수집

본 논문의 설문을 통한 실증조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에 앞서 조사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읽은 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참가자는 한국 179명, 중국 248명으로 총 427명이다.

### 3.5 분석

본 논문의 설문조사자료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 s  $\alpha$ 를 사용하였다.

둘째, 각 요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거주지역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피부인식의 차이,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에 따른 피부유형·피부상태·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거주지역에 따른 음식 성향·피부인식·피부관리행동의 차이, 식습관·즐거먹는 음식·즐거먹는 채식 식재료·즐거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인식·피부관리행동의 차이, 피부유형·피부상태·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피부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음식 성향과 피부인식간의 관계, 음식 성향과 피부관리행동간의 관계,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 간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여섯째,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4.1 신뢰도 검증

〈표 4-1〉 영역의 신뢰성검증

		Alpha
음식 성향	자극고열량추구성향	.668
	미용추구성향	.687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657
	피부결잡티	.839
	민감성	.837
	전체	.873
	화장품 사용	.782
피부관리행동	전문적 관리	.595
	피부타입관리	.731
	생활습관	.859
	전체	.925

설문항목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파(Alpha)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설문항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1〉.

### 4.2 요인분석

요인분석은(Factor analysis)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변수들을 동질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축소, 단순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널리 이용되는 요인분석 모델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r component analysis)과 공통요인분석

(common factor analysis)이 있다. 최초의 정보를 최소한의 요인으로 압축하고자 할 때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변수를 축소, 압축하여 의미 있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인을 회전하는 방법에는 직각회전 방법(orthognanal rotation)을 이용하였는데 직각회전은 회전 시 요인들간의 독립성을 유지시킨다. 직각회전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각회전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방법 중에서 베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의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pm .3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수적인 기준은  $\pm .40$  이상이다. 그리고  $\pm .50$  이상인 경우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5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고유치(EigenValue)는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유치 1 이상, 요인적재량  $\pm .50$  이상을 기준으로 도출된 요인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각회전방법 중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다음의 <표 4-2>는 문항 중 요인 적재량이 낮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를 제거한 후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측정변수들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KMO 측도를 사용하였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 대한 KMO 값이 0.6 이상이므로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증명되었으며, 유의확률 또한 0.000으로 요인들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다고 측정되었다.

〈표 4-2〉 음식 성향 요인의 타당성 검증

	1	2	공통성
비타민제를 꼭 챙겨먹는 편이다	.805	.150	.670
녹차, 커피, 음류 등을 즐겨 먹는 편이다	.738	.109	.557
우유를 꼭 챙겨먹는 편이다	.673	.199	.493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222	.731	.583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206	.665	.485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330	.602	.471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편이다	.412	.593	.521
잡곡밥보다 흰 쌀밥을 좋아하는 편이다	.290	.516	.350
고유값	2.967	1.163	
설명분산	37.092	14.535	
누적분산	37.092	51.627	

KMO = .729

Bartlett' Test of Sphericity = 723.092(df=28, sig.=.000)

음식 성향 측정척도는 고유값(Eigen values)이 1 이상인 2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어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변수별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 0.50 이상으로 각 소속 요인에 비교적 높게 적재되어 있어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4-2〉와 같이 8개 문항에 대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음식 성향 측정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요인1을 ‘미용추구성향’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자극고열량추구성향’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요인1이 37.092%, 요인2가 14.535%로서 총 51.627%가 설명되었다.

고유값이나 분산 설명력이 높을수록 한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음식 성향 요인은 ‘미용추구성향’, ‘자극고열량추구성향’ 순으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피부인식 요인의 타당성 검증

	1	2	3	공통성
피지가 많은 편	.764	.096	.162	.619
피부에 모공이 큰 편	.754	.265	.158	.664
피부에 주름이 많은 편	.693	.298	.258	.635
피부에 색소침착(기미)이 많은 편	.674	.360	.178	.615
피부에 잡티가 많은 편	.658	.334	.120	.559
얼굴이 민감한 편	.288	.870	.165	.868
피부 트러블(알러지)이 잘 생기는 편	.375	.815	.121	.820
피부가 탄력있는 편	.181	.043	.856	.767
피부가 촉촉한 편	.210	.223	.803	.739
고유값	4.506	1.060	1.020	
설명분산	50.069	11.778	7.996	
누적분산	50.069	61.847	69.844	

KMO = .862

Bartlett' Test of Sphericity = 1629.983(df=36, sig.=.000)

위의 〈표 4-3〉은 문항 중 요인 적재량이 낮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편입니까?’를 제거한 후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측정변수들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KMO 측도를 사용하였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 대한 KMO 값이 0.6 이상이므로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증명되었으며, 유의확률 또한 0.000으로 요인들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다고 측정되었다.

피부인식 측정척도는 고유값(Eigen values)이 1 이상인 3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어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변수별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 0.50 이상으로 각 소속 요인에 비교적 높게 적재되어 있어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4-3〉와 같이 9개 문항에 대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피부인식 측정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요인1을 ‘피부결잡티’로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민감성’, 요인3은 ‘수분탄력성’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요인1이 50.069%, 요인2가 11.778%, 요인3이 7.996%로서 총 69.844%가 설명되었다.

고유값이나 분산 설명력이 높을수록 한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부인식 요인은 ‘피부결잡티’, ‘민감성’, ‘수분탄력성’ 순으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변수들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KMO 측도를 사용하였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 대한 KMO 값이 0.6 이상이므로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증명되었으며, 유의확률 또한 0.000으로 요인들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다고 측정되었다.

피부관리행동 측정척도는 고유값(Eigen values)이 1 이상인 4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어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변수별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 0.50 이상으로 각 소속 요인에 비교적 높게 적재되어 있어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4-4 >와 같이 15개 문항에 대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피부관리행동 측정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요인1을 ‘전문적 관리’로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피부타입관리’, 요인3은 ‘생활습관’, 요인4는 ‘화장품 사용’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요인1이 49.227%, 요인2가 7.649%, 요인3이 6.107%, 요인4가 4.801%로서 총 67.784%가 설명되었다.

〈표4-4〉 피부관리행동 요인의 타당성 검증

	1	2	3	4	공통성
정기적으로 피부관리실, 병원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음	<i>.726</i>	.021	.258	.263	.663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피부관리를 함	<i>.650</i>	.440	.409	.018	.665
마사지 시 지나친 자극은 피부를 예민하게 하므로 피함	.345	<i>.709</i>	.346	.137	.649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방법을 바꿔서 관리함	.492	<i>.655</i>	.348	.093	.637
때를 미는 것은 피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됨	.409	<i>.636</i>	.388	.092	.572
피부 건강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함	.132	.243	<i>.785</i>	.248	.755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으로 피부건강을 가꿈	.017	.177	<i>.786</i>	.247	.711
피부건강을 위해 지방이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줄임	.373	.128	<i>.751</i>	.237	.636
피부건강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삼감	.406	.075	<i>.745</i>	.386	.616
피부건강을 위해 금주, 금연함	.124	.205	<i>.668</i>	.318	.649
평소 피부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음	.410	.276	<i>.652</i>	.005	.618
피부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 음식을 줄임	.133	<i>.577</i>	<i>.632</i>	.098	.610
외출 후 화장을 지우고, 세안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씀	.284	.133	.297	<i>.774</i>	.785
집에서 기초화장품으로 간단히 피부관리를 함	.131	<i>.575</i>	.122	<i>.638</i>	.770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	.515	.206	.134	<i>.620</i>	.650
고유값	7.384	1.147	1.116	1.020	
설명분산	49.227	7.649	6.107	4.801	
누적분산	49.227	56.876	62.983	67.784	

KMO = .934

Bartlett' Test of Sphericity = 3267.301(df=105, sig.=.000)

고유값이나 분산 설명력이 높을수록 한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부관리행동 요인은 ‘전문적 관리’, ‘피부타입관리’, ‘생활습관’, ‘화장품 사용’ 순으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4.3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인 사항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은 20-25세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6-30세가 35.1%, 31세 이상이 22.5%, 20세 미만이 6.1% 순이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26-30세가 38.5%, 20-25세가 36.3%, 31세 이상이 20.1%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20-25세가 36.3%, 26-30세가 32.7%, 31세 이상이 24.2% 순이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55.7%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미혼은 44.3%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기혼이 60.3%, 미혼이 39.7%로 나타났고 중국은 기혼이 52.4%, 미혼이 47.6%이다.

직업은 회사원이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무직이 18.5%, 학생이 17.3%, 주부가 11.2% 순이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회사원이 57.0%, 무직이 19.6%, 학생이 16.2%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회사원이 50.0%, 학생이 18.1%, 무직이 17.7% 순이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재학/졸업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 재학/졸업이 34.0%, 고등학교 졸업이 20.8%, 대학원 재학 이상이 7.5% 순이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전문대 재학 / 졸업이 41.9%, 대학생 재학 / 졸업이 26.8%, 고등학교 졸업이 21.8%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대학생 재학/졸업이 39.1%, 전문대 재학/졸업이 34.7%, 고등학교 졸업이 20.2% 순이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3.2%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200-400만원 미만이 24.1%, 600만원 이상이 11.5%, 400-600만원 미만이 11.2% 순이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200-400만원 미만이 46.9%, 600만원 이상이 20.7%, 400-600만원 미만이 17.3%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200만원 미만이 80.6%, 200-400만원 미만이 7.7%, 400-600만원 미만이 6.9% 순이었다.

〈표 4-5〉 일반적 사항

		한국	중국	전체	$\chi^2(p)$
연령	20세 미만	9	17	26	2.366 (.500)
		5.0%	6.9%	6.1%	
	20-25세	65	90	155	
		36.3%	36.3%	36.3%	
	26-30세	69	81	150	
38.5%		32.7%	35.1%		
31세 이상	36	60	96		
		20.1%	24.2%	22.5%	
결혼 여부	미혼	71	118	189	2.641 (.104)
		39.7%	47.6%	44.3%	
	기혼	108	130	238	
		60.3%	52.4%	55.7%	
직업	학생	29	45	74	5.709 (.127)
		16.2%	18.1%	17.3%	
	회사원	102	124	226	
		57.0%	50.0%	52.9%	
	무직	35	44	79	
19.6%		17.7%	18.5%		
주부	13	35	48		
		7.3%	14.1%	11.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39	50	89	7.850* (.049)
		21.8%	20.2%	20.8%	
	전문대 재학/졸업	75	86	161	
		41.9%	34.7%	37.7%	
	대학생 재학/졸업	48	97	145	
26.8%		39.1%	34.0%		
대학원 재학 이상	17	15	32		
		9.5%	6.0%	7.5%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7	200	227	183.341*** (.000)
		15.1%	80.6%	53.2%	
	200-400만원 미만	84	19	103	
		46.9%	7.7%	24.1%	
	400-600만원 미만	31	17	48	
17.3%		6.9%	11.2%		
600만원 이상	37	12	49		
		20.7%	4.8%	11.5%	
전체		179	248	427	
		100.0%	100.0%	100.0%	

\* $p < .05$ , \*\*\* $p < .001$

#### 4.4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연구문제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어떠한가?

〈연구가설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각 나라 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다.

〈표 4-6〉 거주지역에 따른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

		한국	중국	전체	$\chi^2(p)$
식습관	채식	123	80	203	59.819*** (.000)
		68.7%	32.3%	47.5%	
	육식	19	88	107	
		10.6%	35.5%	25.1%	
특별히 가리지 않음	37	80	117		
		20.7%	32.3%	27.4%	
즐거 먹는 음식	한식	137	25	162	221.108*** (.000)
		76.5%	10.1%	37.9%	
	중식	21	200	221	
		11.7%	80.6%	51.8%	
양식	19	15	34		
	10.6%	6.0%	8.0%		
기타	2	8	10		
		1.1%	3.2%	2.3%	
즐거먹는 채식 식재료	야채류	81	131	212	47.695*** (.000)
		45.3%	52.8%	49.6%	
	곡류	25	61	86	
		14.0%	24.6%	20.1%	
	과일류	15	32	47	
		8.4%	12.9%	11.0%	
해조류	7	10	17		
	3.9%	4.0%	4.0%		
버섯류	11	7	18		
	6.1%	2.8%	4.2%		
나물류	40	7	47		
	22.3%	2.8%	11.0%		

		한국	중국	전체	$\chi^2(p)$
즐거먹는 육식 식재료	소고기	38	91	129	34.144*** (.000)
		21.2%	36.7%	30.2%	
	돼지고기	94	98	192	
		52.5%	39.5%	45.0%	
	닭고기	14	29	43	
		7.8%	11.7%	10.1%	
생선	31	14	45		
	17.3%	5.6%	10.5%		
햄, 소시지	2	16	18		
	1.1%	6.5%	4.2%		
전체		179	248	427	
		100.0%	100.0%	100.0%	

\*\*\*  $p < .001$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에 대해 살펴보면 식습관은 채식이 47.5%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특별히 가리지 않음이 27.4%, 육식이 25.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채식이 68.7%로 중국의 32.3%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중국은 육식이 35.5%로 한국의 10.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59.819, p<.001$ )

즐거 먹는 음식은 중식이 51.8%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한식이 37.9%, 양식이 8.0%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한식이 76.5%로 중국의 10.1%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중국은 중식이 80.6%로 한국의 11.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221.108, p<.001$ )

즐거먹는 채식 식재료는 야채류가 49.6%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곡류가 20.1%, 과일류, 나물류가 각각 11.0%, 버섯류가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나물류가 22.3%로 중국의 2.8%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중국은 야채류, 곡류가 각각 52.8%, 24.6%로 한국의 45.3%, 14.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47.695, p<.001$ )

즐거먹는 육식 식재료는 돼지고기가 45.0%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소고기가

30.2%, 생선이 10.5%, 닭고기가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돼지고기, 생선이 각각 52.5%, 17.3%로 중국의 39.5%, 5.6%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중국은 소고기가 36.7%로 한국의 21.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chi^2=34.144, p<.001$ )

따라서 <연구가설1>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각 나라 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7> 거주지역에 따른 음식 성향 차이 검증

		N	M	SD	t	p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한국	179	3.25	1.258	.354	.723
	중국	248	3.21	1.158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한국	179	3.40	1.104	-.139	.889
	중국	248	3.41	1.046		
잡곡밥보다 흰 쌀밥을 좋아하는 편이다	한국	179	3.27	1.059	-2.576*	.010
	중국	248	3.54	1.052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한국	179	3.28	1.045	-3.070*	.002
	중국	248	3.59	1.006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편이다	한국	179	3.36	1.179	1.668	.096
	중국	248	3.18	1.102		
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한국	179	3.27	1.043	-1.004	.316
	중국	248	3.38	1.018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한국	179	1.61	1.001	-14.004***	.000
	중국	248	3.04	1.064		
우유를 꼭 챙겨먹는 편이다	한국	179	3.21	1.140	-.779	.436
	중국	248	3.29	1.152		
비타민제를 꼭 챙겨먹는 편이다	한국	179	3.49	1.108	3.405**	.001
	중국	248	3.09	1.225		
녹차, 커피, 음류 등을 즐겨 먹는 편이다	한국	179	4.24	1.067	7.922**	.000
	중국	248	3.38	1.129		

\*\*  $p<.01$ , \*\*\*  $p<.001$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 성향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잡곡밥보다 흰 쌀밥을 좋아하는 편이다'(t=-2.576,  $p<.01$ ),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t=-3.070,  $p<.01$ ),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t=-14.004,

$p < .001$ ), '비타민제를 꼭 챙겨먹는 편이다'(t=3.405,  $p < .001$ ), '녹차, 커피, 음료를 즐겨 먹는 편이다'(t=7.922,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잡곡밥보다 흰 쌀밥을 좋아하는 편이다',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비타민제를 꼭 챙겨먹는 편이다', '녹차, 커피, 음료 등을 즐겨 먹는 편이다'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8〉 거주지역에 따른 음식 성향 차이 검증

		N	M	SD	t	p
자극고열량추구성향	한국	179	2.96	.725	-4.972*	.000
	중국	248	3.31	.728	**	
미용추구성향	한국	179	3.64	.818	4.498**	.000
	중국	248	3.26	.957	*	

\*\*\*  $p < .001$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 성향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자극고열량추구성향은 한국이 2.96점, 중국이 3.31점으로 한국보다 중국이 자극고열량추구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t=-4.972,  $p < .001$ ) 반면에 미용추구성향은 한국이 3.64점, 중국이 3.26점으로 중국보다 한국이 미용추구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t=4.498,  $p < .001$ )

다음의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유형은 중성이 41.2%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지성이 30.9%, 복합성이 11.9%, 건성이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중성이 55.9%로 중국의 30.6%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중국은 지성, 복합성이 각각 35.1%, 17.3%로 한국의 25.1%, 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36.201$ ,  $p < .001$ )

〈표 4-9〉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인식

		한국	중국	전체	$\chi^2(p)$
피부유형	건성	21	27	48	36.201*** (.000)
		11.7%	10.9%	11.2%	
	중성	100	76	176	
		55.9%	30.6%	41.2%	
	지성	45	87	132	
		25.1%	35.1%	30.9%	
복합성	8	43	51		
	4.5%	17.3%	11.9%		
에민성	5	15	20		
	2.8%	6.0%	4.7%		
피부상태	매우 나쁘다	21	16	37	8.216 (.084)
		11.7%	6.5%	8.7%	
	약간 나쁘다	57	75	132	
		31.8%	30.2%	30.9%	
	보통이다	88	121	209	
		49.2%	48.8%	48.9%	
약간 좋다	10	27	37		
	5.6%	10.9%	8.7%		
매우 좋다	3	9	12		
	1.7%	3.6%	2.8%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	25	14	39	12.023* (.017)
		14.0%	5.6%	9.1%	
	만족하지 못한다	55	69	124	
		30.7%	27.8%	29.0%	
	보통이다	71	107	178	
		39.7%	43.1%	41.7%	
만족하는 편이다	26	51	77		
	14.5%	20.6%	18.0%		
매우 만족한다	2	7	9		
	1.1%	2.8%	2.1%		
피부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	50	71	121	4.031 (.402)
		27.9%	28.6%	28.3%	
	자연적인 노화	80	92	172	
		44.7%	37.1%	40.3%	
	스트레스	36	57	93	
		20.1%	23.0%	21.8%	
환경오염 물질	9	22	31		
	5.0%	8.9%	7.3%		
기타	4	6	10		
	2.2%	2.4%	2.3%		
전체		179	248	427	
		100.0%	100.0%	100.0%	

\* $p < .05$ , \*\*\* $p < .001$

피부상태는 매우 나쁘다+약간 나쁘다의 응답이 약 39%로 매우 좋다+약간 좋다는 약 1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좋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약 38%로 매우 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의 약 2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은 매우 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의 응답이 약 15%, 중국은 약 23%로 한국보다 중국이 피부상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chi^2=12.023, p<.05$ )

피부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연적인 노화가 40.3%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으며 생활습관이 28.3%, 스트레스가 21.8%, 환경오염 물질이 7.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생활습관 또는 자연적인 노화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인식 차이 검증결과는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부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에 색소침착(기미)이 많은 편입니까?'( $t=2.038, p<.05$ ),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편입니까?'( $t=2.552, p<.05$ ), '피부 트러블(알러지)이 잘 생기는 편입니까?'( $t=2.581,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N	M	SD	t	p
피부가 촉촉한 편입니까?	한국	179	3.40	1.124	1.255	.210
	중국	248	3.27	.966		
피부가 탄력있는 편입니까?	한국	179	3.45	.955	.988	.324
	중국	248	3.36	.875		
피지가 많은 편입니까?	한국	179	3.36	.963	.156	.876
	중국	248	3.34	.973		
피부에 잡티가 많은 편입니까?	한국	179	3.34	1.023	1.547	.123
	중국	248	3.19	.978		
피부에 색소침착(기미)이 많은 편입니까?	한국	179	3.37	1.054	2.038*	.042
	중국	248	3.15	1.095		
피부에 모공이 큰 편입니까?	한국	179	3.31	1.024	-.423	.672
	중국	248	3.35	1.004		
피부에 주름이 많은 편입니까?	한국	179	3.21	1.004	.566	.572
	중국	248	3.15	1.060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편입니까?	한국	179	3.34	1.081	2.552*	.011
	중국	248	3.06	1.137		
얼굴이 민감한 편입니까?	한국	179	3.40	1.078	1.330	.184
	중국	248	3.25	1.157		
피부 트러블(알러지)이 잘 생기는 편입니까?	한국	179	3.34	1.054	2.581**	.010
	중국	248	3.05	1.160		

\* $p < .05$ , \*\* $p < .01$

〈표 4-11〉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N	M	SD	t	p
수분탄력성	한국	179	3.42	.901	1.326	.185
	중국	248	3.31	.794		
피부결잡티	한국	179	3.32	.789	1.018	.309
	중국	248	3.24	.800		
민감성	한국	179	3.37	.977	2.107*	.036
	중국	248	3.15	1.082		
전체	한국	179	3.35	.743	1.627	.105
	중국	248	3.24	.716		

\* $p < .05$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민감성은 한국이 3.37점, 중국이 3.15점으로 중국보다 한국이 민감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t=2.107, p<.05$ )

〈표 4-12〉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t	p
외출 후 화장을 지우고, 세안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쓴다	한국	179	3.59	1.058	.206	.837
	중국	248	3.56	1.118		
집에서 기초화장품으로 간단히 피부관리를 한다	한국	179	3.32	1.026	-1.465	.144
	중국	248	3.47	.981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한국	179	3.49	.991	2.317*	.021
	중국	248	3.24	1.130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피부관리를 한다	한국	179	3.41	.998	.331	.741
	중국	248	3.38	1.022		
정기적으로 피부관리실, 병원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	한국	179	3.48	1.030	3.970**	.000
	중국	248	3.04	1.235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방법을 바꿔서 관리한다	한국	179	3.41	.987	1.261	.208
	중국	248	3.28	1.110		
피부 건강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한다	한국	179	3.41	.987	2.670**	.008
	중국	248	3.13	1.152		
마사지 시 지나친 자극은 피부를 예민하게 하므로 피한다	한국	179	3.40	1.025	1.957	.051
	중국	248	3.19	1.117		
때를 미는 것은 피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한국	179	3.51	.968	1.653	.099
	중국	248	3.35	.991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으로 피부건강을 가꾼다	한국	179	3.47	1.035	-1.253	.211
	중국	248	3.60	1.017		
피부건강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삼간다	한국	179	3.30	1.016	-1.221	.223
	중국	248	3.43	1.074		
피부건강을 위해 지방이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줄인다	한국	179	3.36	1.021	-.984	.325
	중국	248	3.46	.985		
피부건강을 위해 금주, 금연한다	한국	179	3.53	1.088	-.269	.788
	중국	248	3.56	1.158		
피부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 음식을 줄인다	한국	179	3.37	.929	-.986	.325
	중국	248	3.46	1.053		
평소 피부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	한국	179	3.42	.965	.641	.522
	중국	248	3.36	1.100		

\*  $p<.05$ , \*\*  $p<.01$ , \*\*\*  $p<.001$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t=2.317, p<.05$ ), ‘정기적으로 피부관리실, 병원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 $t=3.970, p<.001$ ), ‘피부 건강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한다’( $t=2.670,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거주지역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t	p
화장품 사용	한국	179	3.47	.871	.471	.638
	중국	248	3.42	.894		
전문적 관리	한국	179	3.44	.858	2.653**	.008
	중국	248	3.21	.958		
피부타입관리	한국	179	3.44	.809	2.016*	.044
	중국	248	3.28	.859		
생활습관	한국	179	3.41	.777	-.232	.817
	중국	248	3.43	.770		
전체	한국	179	3.43	.748	.888	.375
	중국	248	3.37	.733		

\*  $p<.05$ , \*\*  $p<.01$

〈표 4-13〉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전문적 관리( $t=2.653, p<.01$ ), 피부타입관리( $t=2.016,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5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연구문제2〉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에 선호식품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2〉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은 선호식품에 따라 그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다.

다음의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식습관에 따라서는 채식은 중성이 64.2%로 타 식습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육식은 지성이 36.8%로 타 식습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 = 17.508, p < .05$ ) 즐겨먹는 음식에 따라서는 한식은 중성이 62.0%로 타 음식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중식은 지성이 52.4%로 타 음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 = 26.891, p < .01$ )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에 따라서는 해조류는 건성이 42.9%로 타 식재료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야채류, 버섯류, 나물류는 중성이 각각 61.7%, 63.6%, 65.0%로 타 식재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 = 33.970, p < .05$ )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4> 거주지역별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에 따른 피부유형

		한국					중국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예민성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예민성
식습관	채식	12	79	26	4	2	11	30	22	8	9
		9.8%	64.2%	21.1%	3.3%	1.6%	13.8%	37.5%	27.5%	10.0%	11.3%
	육식	3	5	7	3	1	6	29	38	14	1
		15.8%	26.3%	36.8%	15.8%	5.3%	6.8%	33.0%	43.2%	15.9%	1.1%
특별히 가리지 않음	6	16	12	1	2	10	17	27	21	5	
		16.2%	43.2%	32.4%	2.7%	5.4%	12.5%	21.3%	33.8%	26.3%	6.3%
전체		21	100	45	8	5	27	76	87	43	15
		11.7%	55.9%	25.1%	4.5%	2.8%	10.9%	30.6%	35.1%	17.3%	6.0%
$\chi^2(p)$		17.508*(.025)					22.160**(0.05)				
즐겨 먹는 음식	한식	18	85	26	5	3	6	9	7	1	2
		13.1%	62.0%	19.0%	3.6%	2.2%	24.0%	36.0%	28.0%	4.0%	8.0%
	중식	1	5	11	3	1	19	61	72	38	10
		4.8%	23.8%	52.4%	14.3%	4.8%	9.5%	30.5%	36.0%	19.0%	5.0%
양식	1	9	8	0	1	1	4	5	4	1	
	5.3%	47.4%	42.1%	.0%	5.3%	6.7%	26.7%	33.3%	26.7%	6.7%	
기타	1	1	0	0	0	1	2	3	0	2	
	50.0%	50.0%	.0%	.0%	.0%	12.5%	25.0%	37.5%	.0%	25.0%	
전체		21	100	45	8	5	27	76	87	43	15
		11.7%	55.9%	25.1%	4.5%	2.8%	10.9%	30.6%	35.1%	17.3%	6.0%
$\chi^2(p)$		26.891**(0.008)					15.699(.205)				

		한국					중국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예민성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예민성	
즐거먹는 채식 식재료	야채류	11	50	16	2	2	15	44	43	22	7	
		13.6%	61.7%	19.8%	2.5%	2.5%	11.5%	33.6%	32.8%	16.8%	5.3%	
	곡류	3	11	7	4	0	6	21	19	13	2	
		12.0%	44.0%	28.0%	16.0%	.0%	9.8%	34.4%	31.1%	21.3%	3.3%	
	과일류	2	5	5	2	1	2	8	16	6	0	
		13.3%	33.3%	33.3%	13.3%	6.7%	6.3%	25.0%	50.0%	18.8%	.0%	
	해조류	3	1	3	0	0	4	1	2	1	2	
		42.9%	14.3%	42.9%	.0%	.0%	40.0%	10.0%	20.0%	10.0%	20.0%	
	버섯류	1	7	2	0	1	0	2	2	0	3	
		9.1%	63.6%	18.2%	.0%	9.1%	.0%	28.6%	28.6%	.0%	42.9%	
	나물류	1	26	12	0	1	0	0	5	1	1	
		2.5%	65.0%	30.0%	.0%	2.5%	.0%	.0%	71.4%	14.3%	14.3%	
	전체		21	100	45	8	5	27	76	87	43	15
			11.7%	55.9%	25.1%	4.5%	2.8%	10.9%	30.6%	35.1%	17.3%	6.0%
$\chi^2(p)$		33.970*(.026)					45.110***(.001)					
즐거먹는 육식 식재료	소고기	8	22	7	0	1	12	24	30	20	5	
		21.1%	57.9%	18.4%	.0%	2.6%	13.2%	26.4%	33.0%	22.0%	5.5%	
	돼지고기	4	56	24	6	4	11	35	35	11	6	
		4.3%	59.6%	25.5%	6.4%	4.3%	11.2%	35.7%	35.7%	11.2%	6.1%	
	닭고기	4	3	6	1	0	2	7	12	6	2	
		28.6%	21.4%	42.9%	7.1%	.0%	6.9%	24.1%	41.4%	20.7%	6.9%	
	생선	5	17	8	1	0	2	3	4	4	1	
		16.1%	54.8%	25.8%	3.2%	.0%	14.3%	21.4%	28.6%	28.6%	7.1%	
	햄, 소시지	0	2	0	0	0	0	7	6	2	1	
		.0%	100.0%	.0%	.0%	.0%	.0%	43.8%	37.5%	12.5%	6.3%	
전체		21	100	45	8	5	27	76	87	43	15	
		11.7%	55.9%	25.1%	4.5%	2.8%	10.9%	30.6%	35.1%	17.3%	6.0%	
$\chi^2(p)$		23.226(.108)					11.242(.794)					

\*  $p < .05$ , \*\*  $p < .01$ , \*\*\*  $p < .001$

중국은 식습관에 따라서는 채식은 중성이 37.5%, 육식은 지성이 43.2%로 타 식습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특별히 가리지 않음은 복합성이 26.3%로 타 식습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22.160$ ,  $p < .01$ )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에 따라서는 해조류는 건성이 40.0%, 곡류는 중성이 34.4%로 타 식재료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나물류는 지성이 71.4%, 버섯류는 예민성이 42.9%로

타 식재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45.110$ ,  $p<.001$ ) 즐겨먹는 음식, 즐겨 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의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에 따라서는 곡류는 피부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약 20%로 타 식재료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버섯류는 피부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이 약 72%로 타 식재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37.327$ ,  $p<.05$ ) 식습관, 즐겨 먹는 음식,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식습관, 즐겨 먹는 음식,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5〉 거주지역별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에 따른 피부상태

		한국					중국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식습관	채식	14	44	58	5	2	9	16	42	10	3
		11.4%	35.8%	47.2%	4.1%	1.6%	11.3%	20.0%	52.5%	12.5%	3.8%
	육식	2	5	10	2	0	4	28	45	7	4
		10.5%	26.3%	52.6%	10.5%	.0%	4.5%	31.8%	51.1%	8.0%	4.5%
	특별히 가리지 않음	5	8	20	3	1	3	31	34	10	2
	13.5%	21.6%	54.1%	8.1%	2.7%	3.8%	38.8%	42.5%	12.5%	2.5%	
전체		21	57	88	10	3	16	75	121	27	9
		11.7%	31.8%	49.2%	5.6%	1.7%	6.5%	30.2%	48.8%	10.9%	3.6%
$\chi^2(p)$		4.770(.782)					11.557(.172)				
즐거먹는 음식	한식	17	48	65	5	2	3	5	14	2	1
		12.4%	35.0%	47.4%	3.6%	1.5%	12.0%	20.0%	56.0%	8.0%	4.0%
	중식	1	4	13	2	1	12	62	95	23	8
		4.8%	19.0%	61.9%	9.5%	4.8%	6.0%	31.0%	47.5%	11.5%	4.0%
	양식	2	5	9	3	0	0	5	8	2	0
		10.5%	26.3%	47.4%	15.8%	.0%	.0%	33.3%	53.3%	13.3%	.0%
	기타	1	0	1	0	0	1	3	4	0	0
50.0%		.0%	50.0%	.0%	.0%	12.5%	37.5%	50.0%	.0%	.0%	
전체		21	57	88	10	3	16	75	121	27	9
		11.7%	31.8%	49.2%	5.6%	1.7%	6.5%	30.2%	48.8%	10.9%	3.6%
$\chi^2(p)$		13.307(.347)					6.304(.900)				
즐거먹는 채식 식재료	야채류	16	21	42	1	1	11	44	51	20	5
		19.8%	25.9%	51.9%	1.2%	1.2%	8.4%	33.6%	38.9%	15.3%	3.8%
	곡류	0	7	13	5	0	3	18	36	4	0
		.0%	28.0%	52.0%	20.0%	.0%	4.9%	29.5%	59.0%	6.6%	.0%
	과일류	1	7	5	1	1	2	8	20	1	1
		6.7%	46.7%	33.3%	6.7%	6.7%	6.3%	25.0%	62.5%	3.1%	3.1%
	해조류	2	2	3	0	0	0	3	4	1	2
		28.6%	28.6%	42.9%	.0%	.0%	.0%	30.0%	40.0%	10.0%	20.0%
	버섯류	2	6	3	0	0	0	2	5	0	0
		18.2%	54.5%	27.3%	.0%	.0%	.0%	28.6%	71.4%	.0%	.0%
	나물류	0	14	22	3	1	0	0	5	1	1
		.0%	35.0%	55.0%	7.5%	2.5%	.0%	.0%	71.4%	14.3%	14.3%
전체		21	57	88	10	3	16	75	121	27	9
		11.7%	31.8%	49.2%	5.6%	1.7%	6.5%	30.2%	48.8%	10.9%	3.6%
$\chi^2(p)$		37.327*(.011)					30.282(.065)				

		한국					중국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즐거먹는 육식 식재료	소고기	7	9	20	2	0	6	27	47	6	5
		18.4%	23.7%	52.6%	5.3%	.0%	6.6%	29.7%	51.6%	6.6%	5.5%
	돼지고기	8	33	43	8	2	6	27	45	17	3
		8.5%	35.1%	45.7%	8.5%	2.1%	6.1%	27.6%	45.9%	17.3%	3.1%
	닭고기	2	5	7	0	0	2	13	11	2	1
		14.3%	35.7%	50.0%	.0%	.0%	6.9%	44.8%	37.9%	6.9%	3.4%
	생선	4	8	18	0	1	1	3	9	1	0
		12.9%	25.8%	58.1%	.0%	3.2%	7.1%	21.4%	64.3%	7.1%	.0%
	햄, 소시지	0	2	0	0	0	1	5	9	1	0
		.0%	100.0%	.0%	.0%	.0%	6.3%	31.3%	56.3%	6.3%	.0%
전체	21	57	88	10	3	16	75	121	27	9	
	11.7%	31.8%	49.2%	5.6%	1.7%	6.5%	30.2%	48.8%	10.9%	3.6%	
$\chi^2(p)$		14.413(.568)					12.848(.684)				

\*  $p < .05$

다음의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 보면 한국은 즐겨 먹는 음식에 따라서는 중식은 피부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33%로 타 음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양식은 피부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약 57%로 타 음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chi^2=57.558$ ,  $p < .001$ ) 식습관,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식습관, 즐겨 먹는 음식,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6〉 거주지역별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에 따른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한국					중국				
		아주 만족하 지 못한다	만족하 지 못한다	보통이 다	만족하 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 다	아주 만족하 지 못한다	만족하 지 못한다	보통이 다	만족하 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 다
식습관	채식	15	42	51	15	0	4	18	35	20	3
		12.2%	34.1%	41.5%	12.2%	.0%	5.0%	22.5%	43.8%	25.0%	3.8%
	육식	2	7	7	3	0	6	26	36	18	2
		10.5%	36.8%	36.8%	15.8%	.0%	6.8%	29.5%	40.9%	20.5%	2.3%
특별히 가리지 않음	8	6	13	8	2	4	25	36	13	2	
		21.6%	16.2%	35.1%	21.6%	5.4%	5.0%	31.3%	45.0%	16.3%	2.5%
전체		25	55	71	26	2	14	69	107	51	7
		14.0%	30.7%	39.7%	14.5%	1.1%	5.6%	27.8%	43.1%	20.6%	2.8%
$\chi^2(p)$		14,994(.059)					3,609(.891)				
즐거먹는 음식	한식	21	40	59	17	0	1	7	13	3	1
		15.3%	29.2%	43.1%	12.4%	.0%	4.0%	28.0%	52.0%	12.0%	4.0%
	중식	0	7	7	6	1	11	59	83	42	5
		.0%	33.3%	33.3%	28.6%	4.8%	5.5%	29.5%	41.5%	21.0%	2.5%
	양식	4	7	5	3	0	1	2	8	3	1
21.1%		36.8%	26.3%	15.8%	.0%	6.7%	13.3%	53.3%	20.0%	6.7%	
기타	0	1	0	0	1	1	1	3	3	0	
		.0%	50.0%	.0%	.0%	50.0%	12.5%	12.5%	37.5%	37.5%	.0%
전체		25	55	71	26	2	14	69	107	51	7
		14.0%	30.7%	39.7%	14.5%	1.1%	5.6%	27.8%	43.1%	20.6%	2.8%
$\chi^2(p)$		57.558***(.000)					7.066(.853)				
즐거먹는 채식 식재료	야채류	15	20	34	12	0	7	38	49	35	2
		18.5%	24.7%	42.0%	14.8%	.0%	5.3%	29.0%	37.4%	26.7%	1.5%
	곡류	1	7	10	7	0	5	16	32	7	1
		4.0%	28.0%	40.0%	28.0%	.0%	8.2%	26.2%	52.5%	11.5%	1.6%
	과일류	3	4	5	2	1	2	8	14	7	1
		20.0%	26.7%	33.3%	13.3%	6.7%	6.3%	25.0%	43.8%	21.9%	3.1%
	해조류	0	4	2	1	0	0	3	4	1	2
.0%		57.1%	28.6%	14.3%	.0%	.0%	30.0%	40.0%	10.0%	20.0%	
버섯류	3	5	3	0	0	0	2	5	0	0	
	27.3%	45.5%	27.3%	.0%	.0%	.0%	28.6%	71.4%	.0%	.0%	
나물류	3	15	17	4	1	0	2	3	1	1	
	7.5%	37.5%	42.5%	10.0%	2.5%	.0%	28.6%	42.9%	14.3%	14.3%	
전체		25	55	71	26	2	14	69	107	51	7
		14.0%	30.7%	39.7%	14.5%	1.1%	5.6%	27.8%	43.1%	20.6%	2.8%
$\chi^2(p)$		23.501(.265)					27.892(.112)				

		한국					중국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즐거먹는 육식 식재료	소고기	9	12	12	5	0	8	23	41	16	3
		23.7%	31.6%	31.6%	13.2%	.0%	8.8%	25.3%	45.1%	17.6%	3.3%
	돼지고기	10	31	40	11	2	2	29	41	23	3
		10.6%	33.0%	42.6%	11.7%	2.1%	2.0%	29.6%	41.8%	23.5%	3.1%
	닭고기	2	3	5	4	0	2	8	14	5	0
		14.3%	21.4%	35.7%	28.6%	.0%	6.9%	27.6%	48.3%	17.2%	.0%
	생선	4	7	14	6	0	1	4	5	4	0
		12.9%	22.6%	45.2%	19.4%	.0%	7.1%	28.6%	35.7%	28.6%	.0%
	햄, 소시지	0	2	0	0	0	1	5	6	3	1
		.0%	100.0%	.0%	.0%	.0%	6.3%	31.3%	37.5%	18.8%	6.3%
	전체	25	55	71	26	2	14	69	107	51	7
		14.0%	30.7%	39.7%	14.5%	1.1%	5.6%	27.8%	43.1%	20.6%	2.8%
$\chi^2(p)$		14.943(.529)					8.366(.937)				

\*\*\*  $p < .001$

다음의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민감성( $F=3.295$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별히 가리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채식보다 특별히 가리지 않음이 민감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피부결잡티( $F=4.098$ ,  $p < .05$ ), 민감성( $F=8.314$ ,  $p < .001$ ), 피부인식 전체( $F=6.370$ ,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채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피부결잡티, 피부인식 전체는 특별히 가리지 않음보다 채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민감성은 육식, 특별히 가리지 않음보다 채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17〉 거주지역별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수분탄력성	채식	123	3.38	.857	.413	.663	
		육식	19	3.55	.880			
		특별히 가리지 않음	37	3.49	1.057			
	피부결잡티	채식	123	3.32	.763	.021	.979	
		육식	19	3.28	.716			
		특별히 가리지 않음	37	3.33	.924			
	민감성	채식a	123	3.25	.961	3.295*	.039	c>a
		육식b	19	3.47	.841			
		특별히 가리지 않음c	37	3.70	1.031			
전체	채식	123	3.32	.720	.458	.633		
	육식	19	3.39	.681				
	특별히 가리지 않음	37	3.45	.853				
중국	수분탄력성	채식	80	3.45	.810	1.785	.170	
		육식	88	3.24	.809			
		특별히 가리지 않음	80	3.25	.751			
	피부결잡티	채식a	80	3.42	.846	4.098*	.018	a>c
		육식b	88	3.23	.788			
		특별히 가리지 않음c	80	3.06	.733			
	민감성	채식a	80	3.53	1.009	8.314**	.000	a>b,c
		육식b	88	3.07	1.128			
		특별히 가리지 않음c	80	2.86	1.003			
	전체	채식a	80	3.45	.730	6.370**	.002	a>c
		육식b	88	3.20	.741			
		특별히 가리지 않음c	80	3.06	.623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18〉 거주지역별 즐겨 먹는 음식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수분탄력성	한식a	137	3.38	.910	3.272*	.023	a,b,c>d
		중식b	21	3.62	.907			
		양식c	19	3.66	.602			
		기타d	2	1.75	1.061			
	피부결잡티	한식	137	3.31	.801	1.045	.374	
		중식	21	3.30	.742			
		양식	19	3.49	.583			
		기타	2	2.50	2.121			
	민감성	한식a	137	3.27	.980	3.333*	.021	c>d
		중식b	21	3.60	.861			
		양식c	19	3.89	.774			
		기타d	2	2.50	2.121			
	전체	한식	137	3.32	.755	2.333	.076	
		중식	21	3.44	.661			
		양식	19	3.62	.511			
		기타	2	2.33	1.886			
중국	수분탄력성	한식	25	3.28	.855	.359	.783	
		중식	200	3.31	.782			
		양식	15	3.50	.945			
		기타	8	3.19	.651			
	피부결잡티	한식	25	3.53	.574	1.810	.146	
		중식	200	3.18	.841			
		양식	15	3.44	.572			
		기타	8	3.35	.424			
	민감성	한식a	25	3.54	.815	3.864**	.010	c>b
		중식b	200	3.04	1.114			
		양식c	15	3.80	.797			
		기타d	8	3.44	.776			
	전체	한식	25	3.48	.536	2.301	.078	
		중식	200	3.18	.746			
		양식	15	3.53	.554			
		기타	8	3.33	.456			

\*  $p < .05$ , \*\*  $p < .01$

위의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수분탄력성( $F=3.272$ ,  $p < .05$ ), 민감성( $F=3.333$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양식을 즐겨 먹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수분탄력성은 기타보다 한식, 중식, 양식을 즐겨 먹는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민감성은 기타보다 양식을 즐겨 먹는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민감성( $F=3.864$ ,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식을 즐겨 먹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중식보다 양식을 즐겨 먹는 집단이 민감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19〉 거주지역별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수분탄력성	야채류	81	3.47	.960	.743	.592	
		곡류	25	3.52	.586			
		과일류	15	3.50	.845			
		해조류	7	3.14	.802			
		버섯류	11	3.00	1.140			
		나물류	40	3.40	.914			
	피부결잡티	야채류	81	3.26	.866	.880	.496	
		곡류	25	3.29	.669			
		과일류	15	3.65	.816			
		해조류	7	3.11	.893			
		버섯류	11	3.18	.576			
		나물류	40	3.40	.718			
	민감성	야채류a	81	3.14	1.025	2.409*	.038	c>a
		곡류b	25	3.46	.877			
		과일류c	15	3.90	.828			
		해조류d	7	3.29	.756			
		버섯류e	11	3.32	.982			
		나물류f	40	3.60	.928			
전체	야채류	81	3.28	.824	1.078	.374		
	곡류	25	3.38	.544				
	과일류	15	3.67	.680				
	해조류	7	3.16	.696				
	버섯류	11	3.17	.707				
	나물류	40	3.44	.708				
중국	수분탄력성	야채류	131	3.32	.763	.288	.919	
		곡류	61	3.34	.854			
		과일류	32	3.22	.842			
		해조류	10	3.25	.858			
		버섯류	7	3.57	.450			
		나물류	7	3.21	.951			
	피부결잡티	야채류	131	3.22	.791	.507	.771	
		곡류	61	3.30	.785			
		과일류	32	3.24	.737			
		해조류	10	3.28	.675			
		버섯류	7	2.83	1.507			
		나물류	7	3.37	.778			

		N	M	SD	F	<i>p</i>	Scheffe	
중국	민감성	야채류	131	3.10	1.044	.464	.803	
		곡류	61	3.20	1.100			
		과일류	32	3.08	1.093			
		해조류	10	3.50	1.269			
		버섯류	7	3.50	1.291			
		나물류	7	3.21	1.318			
	전체	야채류	131	3.21	.718	.173	.972	
		곡류	61	3.29	.725			
		과일류	32	3.20	.688			
		해조류	10	3.32	.598			
		버섯류	7	3.14	1.018			
		나물류	7	3.30	.785			

\*  $p < .05$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민감성( $F=2.409$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과일류를 즐겨먹는 집단이 민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야채류보다 과일류를 즐겨 먹는 집단이 민감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0〉 거주지역별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인식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수분탄력성	소고기	38	3.30	.919	.242	.914	
		돼지고기	94	3.45	.883			
		닭고기	14	3.50	1.092			
		생선	31	3.45	.898			
		햄, 소시지	2	3.25	.354			
	피부결잡티	소고기	38	3.38	.713	.122	.975	
		돼지고기	94	3.30	.792			
		닭고기	14	3.24	.993			
		생선	31	3.33	.804			
		햄, 소시지	2	3.40	1.131			
	민감성	소고기	38	3.54	.896	.564	.689	
		돼지고기	94	3.27	1.026			
		닭고기	14	3.46	1.100			
		생선	31	3.39	.892			
		햄, 소시지	2	3.50	.707			
	전체	소고기	38	3.40	.719	.075	.990	
		돼지고기	94	3.33	.721			
		닭고기	14	3.35	.946			
		생선	31	3.37	.780			
		햄, 소시지	2	3.39	.864			
중국	수분탄력성	소고기	91	3.25	.854	.481	.750	
		돼지고기	98	3.30	.710			
		닭고기	29	3.47	.823			
		생선	14	3.43	.781			
		햄, 소시지	16	3.34	.926			
	피부결잡티	소고기	91	3.18	.794	1.214	.305	
		돼지고기	98	3.23	.787			
		닭고기	29	3.34	.810			
		생선	14	3.06	.913			
		햄, 소시지	16	3.59	.768			
	민감성	소고기	91	2.99	1.076	1.172	.324	
		돼지고기	98	3.19	1.104			
		닭고기	29	3.26	1.099			
		생선	14	3.21	1.014			
		햄, 소시지	16	3.56	.964			
	전체	소고기	91	3.15	.722	1.193	.315	
		돼지고기	98	3.24	.660			
		닭고기	29	3.35	.802			
		생선	14	3.17	.783			
		햄, 소시지	16	3.53	.781			

〈표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1〉 거주지역별 음식 성향과 피부인식 간의 관계

			1	2	3	4	5	6
한국	음식 성향	1. 자극고열량추구성향	1					
		2. 미용추구성향	.366**	1				
	피부 인식	3. 수분탄력성	.427**	.560**	1			
		4. 피부결잡티	.677**	.465**	.534**	1		
		5. 민감성	.592**	.347**	.424**	.748**	1	
		6. 전체	.688**	.526**	.708**	.952**	.847**	1
중국	음식 성향	1. 자극고열량추구성향	1					
		2. 미용추구성향	.606**	1				
	피부 인식	3. 수분탄력성	.553**	.457**	1			
		4. 피부결잡티	.603**	.555**	.430**	1		
		5. 민감성	.498**	.452**	.333**	.614**	1	
		6. 전체	.677**	.609**	.625**	.932**	.798**	1

\*\* $p < .01$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지역별 음식 성향과 피부인식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음식 성향과 피부인식은  $r = .347 (p < .01)$ 에서  $r = .688 (p < .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음식 성향이 높으면 피부인식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음식 성향과 피부인식은  $r = .452 (p < .01)$ 에서  $r = .677 (p < .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음식 성향이 높으면 피부인식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거주지역별 식습관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화장품 사용	채식	123	3.50	.827	1.336	.266	
		육식	19	3.16	.945			
		특별히 가리지 않음	37	3.51	.964			
	전문적 관리	채식	123	3.40	.765	2.241	.109	
		육식	19	3.24	.839			
		특별히 가리지 않음	37	3.69	1.101			
	피부타입관 리	채식	123	3.44	.803	.602	.549	
		육식	19	3.28	.826			
		특별히 가리지 않음	37	3.53	.829			
	생활습관	채식	123	3.43	.763	.383	.683	
		육식	19	3.26	.752			
		특별히 가리지 않음	37	3.42	.847			
	전체	채식	123	3.44	.733	.770	.464	
		육식	19	3.24	.696			
		특별히 가리지 않음	37	3.50	.823			
중국	화장품 사용	채식	80	3.62	.867	2.763	.065	
		육식	88	3.33	.908			
		특별히 가리지 않음	80	3.33	.884			
	전문적 관리	채식	80	3.42	.926	2.857	.059	
		육식	88	3.11	.979			
		특별히 가리지 않음	80	3.11	.944			
	피부타입관 리	채식	80	3.45	.785	2.648	.073	
		육식	88	3.21	.850			
		특별히 가리지 않음	80	3.17	.919			
	생활습관	채식	80	3.58	.670	2.600	.076	
		육식	88	3.41	.789			
		특별히 가리지 않음	80	3.30	.826			
	전체	채식a	80	3.54	.680	3.418*	.034	a>c
		육식b	88	3.31	.746			
		특별히 가리지 않음c	80	3.26	.747			

\*  $p < .05$

〈표 4-22〉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식습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피부관리행동 전체( $F=3.418$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채식을 하는 경우가 피부관리행동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특별히 가리지 않음보다 채식을 하는 경우가 피부관리행동 전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23〉 거주지역별 즐겨 먹는 음식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화장품 사용	한식a	137	3.50	.879	3.693*	.013	a,b,c>d
		중식b	21	3.62	.784			
		양식c	19	3.25	.692			
		기타d	2	1.67	.943			
	전문적 관리	한식a	137	3.39	.830	2.737*	.045	b>d
		중식b	21	3.79	1.019			
		양식c	19	3.55	.643			
		기타d	2	2.25	1.768			
	피부타입관리	한식	137	3.42	.831	1.200	.311	
		중식	21	3.59	.649			
		양식	19	3.51	.642			
		기타	2	2.50	2.121			
	생활습관	한식a	137	3.40	.808	2.716*	.046	a,b,c>d
		중식b	21	3.52	.506			
		양식c	19	3.49	.625			
		기타d	2	1.93	1.313			
전체	한식a	137	3.43	.766	2.733*	.045	a,b,c>d	
	중식b	21	3.59	.576				
	양식c	19	3.45	.600				
	기타d	2	2.03	1.461				
중국	화장품 사용	한식	25	3.63	.709	.629	.597	
		중식	200	3.39	.938			
		양식	15	3.56	.752			
		기타	8	3.38	.330			
	전문적 관리	한식	25	3.60	.722	1.744	.159	
		중식	200	3.16	.991			
		양식	15	3.33	.900			
		기타	8	3.06	.623			
	피부타입관리	한식	25	3.61	.614	1.679	.172	
		중식	200	3.22	.901			
		양식	15	3.31	.672			
		기타	8	3.46	.469			
	생활습관	한식	25	3.67	.513	1.031	.380	
		중식	200	3.40	.817			
		양식	15	3.43	.556			
		기타	8	3.27	.448			
전체	한식	25	3.64	.465	1.377	.250		
	중식	200	3.33	.776				
	양식	15	3.42	.575				
	기타	8	3.30	.382				

\* p<.05

〈표 4-23〉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화장품 사용 ( $F=3.693, p<.05$ ), 전문적 관리( $F=2.737, p<.05$ ), 생활습관( $F=2.716, p<.05$ ), 피부관리행동 전체( $F=2.733,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중식을 즐겨 먹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전문적 관리는 기타보다 중식을 즐겨 먹는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화장품 사용, 생활습관, 피부관리행동 전체는 기타보다 한식, 중식, 양식을 즐겨 먹는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즐겨 먹는 음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4〉 거주지역별 즐겨먹는 재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화장품 사용	야채류	81	3.48	.943	.576	.718	
		곡류	25	3.56	.672			
		과일류	15	3.58	.955			
		해조류	7	3.14	.742			
		버섯류	11	3.67	.919			
		나물류	40	3.34	.822			
	전문적 관리	야채류	81	3.43	.994	.411	.840	
		곡류	25	3.44	.682			
		과일류	15	3.53	.834			
		해조류	7	3.07	.607			
		버섯류	11	3.64	.745			
		나물류	40	3.46	.746			
	피부타입관리	야채류	81	3.40	.898	.518	.763	
		곡류	25	3.59	.454			
		과일류	15	3.60	.875			
		해조류	7	3.14	.663			
		버섯류	11	3.48	.545			
		나물류	40	3.42	.863			
생활습관	야채류	81	3.40	.893	.573	.721		
	곡류	25	3.49	.461				
	과일류	15	3.43	.786				
	해조류	7	3.20	.674				
	버섯류	11	3.12	.797				
	나물류	40	3.50	.700				
전체	야채류	81	3.42	.872	.296	.914		
	곡류	25	3.52	.430				
	과일류	15	3.51	.714				
	해조류	7	3.16	.578				
	버섯류	11	3.37	.697				
	나물류	40	3.45	.705				
중국	화장품 사용	야채류	131	3.42	.814	2.183	.057	
		곡류	61	3.45	.886			
		과일류	32	3.18	.995			
		해조류	10	3.50	1.317			
		버섯류	7	4.38	.705			
		나물류	7	3.33	1.018			
	전문적 관리	야채류	131	3.21	.971	.839	.523	
		곡류	61	3.25	.994			
		과일류	32	2.98	.920			
		해조류	10	3.35	1.055			
		버섯류	7	3.71	.636			
		나물류	7	3.07	.607			

		N	M	SD	F	p	Scheffe	
중국	피부타입관리	야채류	131	3.28	.824	1.322	.255	
		곡류	61	3.28	.865			
		과일류	32	3.09	.909			
		해조류	10	3.60	1.109			
		버섯류	7	3.81	.539			
		나물류	7	2.95	.970			
	생활습관	야채류	131	3.39	.762	1.435	.212	
		곡류	61	3.55	.716			
		과일류	32	3.22	.904			
		해조류	10	3.66	.929			
		버섯류	7	3.84	.518			
		나물류	7	3.27	.462			
	전체	야채류	131	3.35	.711	1.711	.133	
		곡류	61	3.43	.695			
		과일류	32	3.16	.851			
		해조류	10	3.57	.983			
		버섯류	7	3.92	.311			
		나물류	7	3.19	.544			

〈표 4-24〉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여성 모두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5〉 거주지역별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화장품 사용	소고기	38	3.56	.727	1.177	.323	
		돼지고기	94	3.54	.891			
		닭고기	14	3.12	1.091			
		생선	31	3.32	.863			
		햄, 소시지	2	3.00	.471			
	전문적 관리	소고기	38	3.46	.873	.390	.816	
		돼지고기	94	3.49	.788			
		닭고기	14	3.21	1.069			
		생선	31	3.37	.974			
		햄, 소시지	2	3.50	.707			
	피부타입관 리	소고기	38	3.41	.765	.349	.845	
		돼지고기	94	3.50	.819			
		닭고기	14	3.33	.970			
		생선	31	3.33	.793			
		햄, 소시지	2	3.50	.707			
	생활습관	소고기	38	3.41	.728	.265	.900	
		돼지고기	94	3.46	.784			
		닭고기	14	3.30	.901			
		생선	31	3.33	.795			
		햄, 소시지	2	3.29	.808			
전체	소고기	38	3.45	.678	.472	.756		
	돼지고기	94	3.49	.743				
	닭고기	14	3.26	.914				
	생선	31	3.33	.790				
	햄, 소시지	2	3.30	.707				
중국	화장품 사용	소고기	91	3.26	.916	1.308	.268	
		돼지고기	98	3.51	.947			
		닭고기	29	3.57	.745			
		생선	14	3.38	.665			
		햄, 소시지	16	3.58	.793			
	전문적 관리	소고기a	91	2.96	.989	2.598*	.037	c>a
		돼지고기b	98	3.33	.897			
		닭고기c	29	3.45	1.088			
		생선d	14	3.29	.955			
		햄, 소시지e	16	3.41	.638			
	피부타입관 리	소고기	91	3.10	.947	1.654	.161	
		돼지고기	98	3.35	.789			
		닭고기	29	3.47	.852			
		생선	14	3.33	.599			
		햄, 소시지	16	3.40	.863			

		N	M	SD	F	p	Scheffe	
중국	생활습관	소고기	91	3.32	.844	.863	.487	
		돼지고기	98	3.51	.659			
		닭고기	29	3.47	.965			
		생선	14	3.32	.442			
		햄, 소시지	16	3.53	.806			
	전체	소고기	91	3.22	.805	1.631	.167	
		돼지고기	98	3.46	.649			
		닭고기	29	3.49	.819			
		생선	14	3.33	.477			
		햄, 소시지	16	3.50	.748			

\*  $p < .05$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전문적 관리( $F=2.598,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닭고기를 즐겨먹는 집단이 전문적 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즐겨먹는 집단이 전문적 관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26〉 거주지역별 음식 성향과 피부관리행동 간의 관계

			1	2	3	4	5	6	7
한국	음식 성향	1. 자극고열량추구성향	1						
		2. 미용추구성향	.366**	1					
	피부관 리행동	3. 화장품 사용	.353**	.625**	1				
		4. 전문적 관리	.449**	.542**	.716**	1			
		5. 피부타입관리	.420**	.605**	.765**	.726**	1		
		6. 생활습관	.372**	.675**	.759**	.750**	.862**	1	
		7. 전체	.422**	.687**	.876**	.841**	.924**	.963**	1
중국	음식 성향	1. 자극고열량추구성향	1						
		2. 미용추구성향	.606**	1					
	피부관 리행동	3. 화장품 사용	.481**	.492**	1				
		4. 전문적 관리	.534**	.525**	.660**	1			
		5. 피부타입관리	.541**	.568**	.731**	.729**	1		
		6. 생활습관	.522**	.495**	.632**	.622**	.689**	1	
		7. 전체	.593**	.587**	.840**	.811**	.877**	.914**	1

\*\*  $p < .01$

〈표 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지역별 음식 성향과 피부관리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음식 성향과 피부관리행동은  $r = .353(p < .01)$ 에서  $r = .687(p < .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음식 성향이 높으면 피부 관리행동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음식 성향과 피부관리행동은  $r = .481(p < .01)$ 에서  $r = .593(p < .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음식 성향이 높으면 피부관리행동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2〉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은 선호식품에 따라 그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 4.6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연구문제3〉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이 피부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3〉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차이는 피부관리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27〉 거주지역별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화장품 사용	건성a	21	2.94	1.167	3.270*	.013	e>a
		중성b	100	3.52	.860			
		지성c	45	3.50	.702			
		복합성d	8	3.54	.589			
		예민성e	5	4.27	.494			
	전문적 관리	건성a	21	2.93	1.165	3.551**	.008	e>a
		중성b	100	3.45	.778			
		지성c	45	3.67	.791			
		복합성d	8	3.19	.884			
		예민성e	5	4.00	.500			
	피부타입관 리	건성	21	3.13	1.176	1.229	.300	
		중성	100	3.44	.786			
		지성	45	3.56	.706			
		복합성	8	3.38	.415			
		예민성	5	3.73	.596			
	생활습관	건성	21	3.12	1.114	1.237	.297	
		중성	100	3.43	.775			
		지성	45	3.54	.638			
		복합성	8	3.20	.411			
		예민성	5	3.49	.540			
전체	건성	21	3.06	1.088	1.968	.101		
	중성	100	3.45	.729				
	지성	45	3.55	.624				
	복합성	8	3.30	.429				
	예민성	5	3.76	.361				
중국	화장품 사용	건성	27	3.42	.870	1.705	.149	
		중성	76	3.50	.902			
		지성	87	3.27	.902			
		복합성	43	3.46	.766			
		예민성	15	3.87	1.090			

		N	M	SD	F	p	Scheffe	
중국	전문적 관리	건성	27	3.26	.974	1.490	.206	
		중성	76	3.41	1.044			
		지성	87	3.09	.906			
		복합성	43	3.07	.890			
		예민성	15	3.20	.882			
	피부타입관 리	건성	27	3.05	1.007	2.327	.057	
		중성	76	3.50	.837			
		지성	87	3.18	.818			
		복합성	43	3.16	.831			
		예민성	15	3.40	.847			
	생활습관	건성	27	3.54	.804	1.985	.097	
		중성	76	3.60	.697			
		지성	87	3.28	.776			
		복합성	43	3.39	.825			
		예민성	15	3.31	.773			
	전체	건성	27	3.38	.765	1.795	.130	
		중성	76	3.53	.738			
		지성	87	3.24	.728			
		복합성	43	3.31	.676			
		예민성	15	3.43	.757			

\* $p < .05$ , \*\* $p < .01$

<표 4-27>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화장품 사용( $F=3.270$ ,  $p < .05$ ), 전문적 관리( $F=3.551$ ,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예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건성보다 예민성이 화장품 사용, 전문적 관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피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8〉 거주지역별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화장품 사용	매우 나쁘다a	21	2.89	1.213	3.302*	.012	e>a
		약간 나쁘다b	57	3.50	.780			
		보통이다c	88	3.52	.816			
		약간 좋다d	10	3.83	.671			
		매우 좋다e	3	4.00	.000			
	전문적 관리	매우 나쁘다a	21	2.83	1.307	3.701**	.006	e>a
		약간 나쁘다b	57	3.45	.754			
		보통이다c	88	3.53	.757			
		약간 좋다d	10	3.80	.715			
		매우 좋다e	3	3.83	.289			
	피부타입관 리	매우 나쁘다a	21	2.90	1.252	2.840*	.026	e>a
		약간 나쁘다b	57	3.53	.651			
		보통이다c	88	3.48	.756			
		약간 좋다d	10	3.63	.656			
		매우 좋다e	3	3.67	.577			
	생활습관	매우 나쁘다a	21	2.80	1.173	4.171**	.003	e>a
		약간 나쁘다b	57	3.48	.680			
		보통이다c	88	3.48	.685			
		약간 좋다d	10	3.64	.643			
		매우 좋다e	3	3.71	.247			
전체	매우 나쁘다a	21	2.84	1.177	4.292**	.002	e>a	
	약간 나쁘다b	57	3.49	.621				
	보통이다c	88	3.49	.661				
	약간 좋다d	10	3.70	.586				
	매우 좋다e	3	3.78	.234				
중국	화장품 사용	매우 나쁘다	16	3.46	.582	1.700	.151	
		약간 나쁘다	75	3.30	.901			
		보통이다	121	3.40	.887			
		약간 좋다	27	3.73	.992			
		매우 좋다	9	3.85	.915			
	전문적 관리	매우 나쁘다	16	3.22	.730	1.553	.187	
		약간 나쁘다	75	3.02	.995			
		보통이다	121	3.24	.927			
		약간 좋다	27	3.46	.990			
		매우 좋다	9	3.56	1.184			
	피부타입관 리	매우 나쁘다a	16	3.29	.676	2.889*	.023	e>b
		약간 나쁘다b	75	3.10	.844			
		보통이다c	121	3.27	.838			
		약간 좋다d	27	3.53	.988			
		매우 좋다e	9	3.96	.772			

			N	M	SD	F	p	Scheffe
중국	생활습관	매우 나쁘다	16	3.46	.588	1.584	.179	
		약간 나쁘다	75	3.34	.803			
		보통이다	121	3.41	.744			
		약간 좋다	27	3.54	.858			
		매우 좋다	9	3.98	.733			
	전체	매우 나쁘다	16	3.39	.486	2.258	.063	
		약간 나쁘다	75	3.24	.748			
		보통이다	121	3.36	.718			
		약간 좋다	27	3.57	.792			
		매우 좋다	9	3.90	.771			

\* $p < .05$ , \*\* $p < .01$

<표 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화장품 사용( $F=3.302, p < .05$ ), 전문적 관리( $F=3.701, p < .01$ ), 피부타입관리( $F=2.840, p < .05$ ), 생활습관( $F=4.171, p < .01$ ), 피부관리행동 전체( $F=4.292, p < .01$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피부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화장품 사용, 전문적 관리, 피부타입관리, 생활습관, 피부관리행동 전체 모두 피부상태가 매우 나쁜 집단보다 매우 좋은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피부타입관리( $F=2.889,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보다 매우 좋다, 약간 좋다가 피부타입관리가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피부상태가 약간 나쁜 집단보다 매우 좋은 집단이 피부타입관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29〉 거주지역별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화장품 사용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a	25	3.33	1.225	4.737** *	.001	d>e
		만족하지 못한다b	55	3.20	.669			
		보통이다c	71	3.56	.808			
		만족하는 편이다d	26	3.96	.675			
		매우 만족한다e	2	2.50	2.121			
	전문적 관리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a	25	3.32	1.241	6.563** *	.000	d>e
		만족하지 못한다b	55	3.23	.615			
		보통이다c	71	3.43	.719			
		만족하는 편이다d	26	4.13	.794			
		매우 만족한다e	2	2.50	2.121			
	피부타입관리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a	25	3.13	1.175	4.422** *	.002	d>e
		만족하지 못한다b	55	3.30	.571			
		보통이다c	71	3.52	.774			
		만족하는 편이다d	26	3.88	.588			
		매우 만족한다e	2	2.50	2.121			
생활습관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a	25	3.14	1.183	3.956** *	.004	d>e	
	만족하지 못한다b	55	3.29	.558				
	보통이다c	71	3.47	.701				
	만족하는 편이다d	26	3.82	.609				
	매우 만족한다e	2	2.50	2.121				
전체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a	25	3.20	1.166	5.218** *	.001	d>e	
	만족하지 못한다b	55	3.27	.494				
	보통이다c	71	3.49	.650				
	만족하는 편이다d	26	3.91	.598				
	매우 만족한다e	2	2.50	2.121				
중국	화장품 사용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	14	3.17	1.011	1.452	.218	
		만족하지 못한다	69	3.48	.841			
		보통이다	107	3.32	.858			
		만족하는 편이다	51	3.64	.911			
		매우 만족한다	7	3.38	1.393			
	전문적 관리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a	14	3.36	1.064	3.575** *	.007	d>b
		만족하지 못한다b	69	2.96	.954			
		보통이다c	107	3.17	.864			
		만족하는 편이다d	51	3.60	.954			
		매우 만족한다e	7	3.14	1.464			
	피부타입관리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a	14	3.10	1.041	3.260* *	.013	e>a
		만족하지 못한다b	69	3.24	.852			
		보통이다c	107	3.14	.777			
		만족하는 편이다d	51	3.60	.907			
		매우 만족한다e	7	3.71	.848			

			N	M	SD	F	p	Scheffe
중국	생활습관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	14	3.60	.856	2.277	.062	
		만족하지 못한다	69	3.42	.689			
		보통이다	107	3.30	.761			
		만족하는 편이다	51	3.62	.834			
		매우 만족한다	7	3.84	.749			
	전체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 <sup>a</sup>	14	3.38	.775	2.422*	.049	e>c
		만족하지 못한다 <sup>b</sup>	69	3.33	.670			
		보통이다 <sup>c</sup>	107	3.25	.703			
		만족하는 편이다 <sup>d</sup>	51	3.62	.798			
		매우 만족한다 <sup>e</sup>	7	3.63	.922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화장품 사용( $F=4.737$ ,  $p < .001$ ), 전문적 관리( $F=6.563$ ,  $p < .001$ ), 피부타입관리( $F=4.422$ ,  $p < .01$ ), 생활습관( $F=3.956$ ,  $p < .01$ ), 피부관리행동 전체( $F=5.218$ ,  $p < .001$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매우 만족하는 집단보다 나머지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화장품 사용, 전문적 관리, 피부타입관리, 생활습관, 피부관리행동 전체 모두 매우 만족하는 집단보다 만족하는 편인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전문적 관리( $F=3.575$ ,  $p < .01$ ), 피부타입관리( $F=3.260$ ,  $p < .05$ ), 피부관리행동 전체( $F=2.422$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적 관리는 만족하는 편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부타입관리, 피부관리행동 전체는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전문적 관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보다 만족하는 편인 집단이, 피부타입관리는 아주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보다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피부관리행동 전체는 보통인 집단보다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30〉 거주지역별 피부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한국	화장품 사용	생활습관	50	3.42	1.152	.484	.747	
		자연적인 노화	80	3.53	.695			
		스트레스	36	3.35	.708			
		환경오염 물질	9	3.67	.850			
		기타	4	3.25	1.524			
	전문적 관리	생활습관	50	3.42	1.032	.080	.988	
		자연적인 노화	80	3.45	.692			
		스트레스	36	3.47	.783			
		환경오염 물질	9	3.50	1.225			
		기타	4	3.25	1.555			
	피부타입관리	생활습관	50	3.47	1.015	.354	.841	
		자연적인 노화	80	3.48	.689			
		스트레스	36	3.31	.666			
		환경오염 물질	9	3.52	.818			
		기타	4	3.25	1.500			
생활습관	생활습관	50	3.45	1.058	.239	.916		
	자연적인 노화	80	3.38	.613				
	스트레스	36	3.44	.535				
	환경오염 물질	9	3.51	.872				
	기타	4	3.14	1.443				
전체	생활습관	50	3.44	1.012	.158	.959		
	자연적인 노화	80	3.44	.568				
	스트레스	36	3.40	.562				
	환경오염 물질	9	3.54	.851				
	기타	4	3.20	1.480				
중국	화장품 사용	생활습관	71	3.26	.919	1.172	.324	
		자연적인 노화	92	3.54	.821			
		스트레스	57	3.49	.875			
		환경오염 물질	22	3.35	1.166			
		기타	6	3.28	.574			
	전문적 관리	생활습관	71	3.02	1.026	1.407	.232	
		자연적인 노화	92	3.34	.932			
		스트레스	57	3.31	.915			
		환경오염 물질	22	3.09	.984			
		기타	6	3.00	.548			
	피부타입관리	생활습관a	71	3.02	.827	2.798*	.027	c>a
		자연적인 노화b	92	3.40	.853			
		스트레스c	57	3.44	.795			
		환경오염 물질d	22	3.12	1.037			
		기타e	6	3.39	.647			

		N	M	SD	F	p	Scheffe	
중 국	생활습관	생활습관a	71	3.17	.818	3.280*	.012	b>a
		자연적인 노화b	92	3.57	.717			
		스트레스c	57	3.56	.697			
		환경오염 물질d	22	3.36	.915			
		기타e	6	3.33	.322			
	전체	생활습관a	71	3.14	.737	3.012*	.019	b>a
		자연적인 노화b	92	3.50	.709			
		스트레스c	57	3.49	.670			
		환경오염 물질d	22	3.28	.894			
		기타e	6	3.29	.390			

\*  $p < .05$

<표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관리행동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피부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피부타입관리( $F=2.798$ ,  $p < .05$ ), 생활습관( $F=3.280$ ,  $p < .05$ ), 피부관리행동 전체( $F=3.012$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피부타입관리는 스트레스라고 답한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생활습관, 피부관리행동 전체는 자연적인 노화라고 답한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피부타입관리는 생활습관보다 스트레스라고 답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생활습관, 피부관리행동 전체는 생활습관보다 자연적인 노화라고 답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31〉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 간의 관계

		1	2	3	4	5	6	7	8	9
한국	피부인식	1. 수분탄력성	1							
		2. 피부결잡티	.534**	1						
		3. 민감성	.424**	.748**	1					
		4. 전체	.708**	.952**	.847**	1				
	피부관리행동	5. 화장품 사용	.617**	.510**	.371**	.576**	1			
		6. 전문적 관리	.651**	.647**	.486**	.699**	.716**	1		
		7. 피부타입관리	.681**	.647**	.508**	.714**	.765**	.726**	1	
		8. 생활습관	.727**	.647**	.477**	.717**	.759**	.750**	.862**	1
		9. 전체	.744**	.672**	.502**	.743**	.876**	.841**	.924**	.963**
중국	피부인식	1. 수분탄력성	1							
		2. 피부결잡티	.430**	1						
		3. 민감성	.333**	.614**	1					
		4. 전체	.625**	.932**	.798**	1				
	피부관리행동	5. 화장품 사용	.460**	.373**	.420**	.485**	1			
		6. 전문적 관리	.426**	.488**	.462**	.563**	.660**	1		
		7. 피부타입관리	.496**	.502**	.531**	.611**	.731**	.729**	1	
		8. 생활습관	.460**	.528**	.462**	.595**	.632**	.622**	.689**	1
		9. 전체	.528**	.552**	.533**	.652**	.840**	.811**	.877**	.914**

\*\*  $p < .01$

〈표 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은  $r = .371 (p < .01)$ 에서  $r = .744$

( $p < .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피부인식이 높으면 피부관리행동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은  $r = .373$ ( $p < .01$ )에서  $r = .652$ ( $p < .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피부인식이 높으면 피부관리행동도 높았다.

〈표 4-32〉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화장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beta$	t	p	
한국	(상수)	.823	.265		3.108	.002	
	피부상태	.081	.074	.078	1.088	.278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009	.066	-.010	-.141	.888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441	.070	.456	6.288***	.000
		피부결잡티	.343	.105	.311	3.262***	.001
		민감성	-.055	.079	-.062	-.699	.486
F=26.372*** $p < .001$ $R^2 = .433$							
중국	(상수)	1.171	.285		4.101	.000	
	피부상태	.070	.069	.068	1.017	.310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042	.066	-.043	-.641	.522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377	.074	.335	5.072***	.000
		피부결잡티	.072	.082	.064	.876	.382
		민감성	.223	.057	.270	3.930***	.000
F=20.421*** $p < .001$ $R^2 = .297$							

\*\*\*  $p < .001$

〈표 4-32〉와 같이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화장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설명력은 43.3%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26.37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화장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 = .456$ ,  $p < .001$ ), 피부결잡티( $\beta = .311$ ,  $p < .001$ )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

잡티가 높아지면 화장품 사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설명력은 29.7%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20.421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화장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335$ ,  $p<.001$ ), 민감성( $\beta=.270$ ,  $p<.001$ )이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민감성이 높아지면 화장품 사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수분탄력성, 민감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3〉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전문적 관리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beta$	t	p	
한국	(상수)	.351	.230		1.527	.128	
	피부상태	.115	.065	.112	1.787	.076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009	.057	-.010	-.162	.871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368	.061	.386	6.034***	.000
		피부결잡티	.503	.091	.463	5.521***	.000
		민감성	-.031	.069	-.035	-.448	.655
	F=43.902*** $p<.001$ $R^2=.559$						
중국	(상수)	.247	.295		.836	.404	
	피부상태	.055	.071	.050	.775	.439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119	.068	.112	1.749	.082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217	.077	.180	2.830**	.005
		피부결잡티	.336	.085	.280	3.952***	.000
		민감성	.210	.059	.237	3.589***	.000
	F=25.693*** $p<.001$ $R^2=.347$						

\*\*  $p<.01$ , \*\*\*  $p<.001$

〈표 4-33〉과 같이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전문적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설명력은 55.9%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43.90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전문적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386$ ,  $p<.001$ ), 피부결잡티( $\beta=.463$ ,  $p<.001$ )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가 높아지면 전문적 관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피부결잡티, 수분탄력성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설명력은 34.7%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25.693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전문적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180$ ,

$p < .01$ ), 피부결잡티( $\beta = .280, p < .001$ ), 민감성( $\beta = .237, p < .001$ )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민감성이 높아지면 전문적 관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피부결잡티, 민감성, 수분탄력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4〉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피부타입관리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beta$	t	p	
한국	(상수)	.602	.212		2.837	.005	
	피부상태	-.018	.060	-.019	-.307	.759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046	.052	.053	.869	.386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412	.056	.458	7.324***	.000
		피부결잡티	.376	.084	.367	4.467***	.000
		민감성	.033	.063	.040	.529	.598
F=47.486*** $p < .001$ $R^2 = .578$							
중국	(상수)	.388	.247		1.569	.118	
	피부상태	.087	.059	.088	1.464	.144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074	.057	.077	1.284	.200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270	.064	.250	4.200***	.000
		피부결잡티	.223	.071	.208	3.136**	.002
		민감성	.261	.049	.328	5.308***	.000
F=36.468*** $p < .001$ $R^2 = .430$							

\*\*  $p < .01$ , \*\*\*  $p < .001$

위의 〈표 4-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피부타입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설명력은 57.8%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47.486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피부타입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 = .458, p < .001$ ), 피부결잡티( $\beta = .367, p < .001$ )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가 높아지면 피부타입관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설명력은 43.0%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36.468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피부타입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250$ ,  $p<.001$ ), 피부결잡티( $\beta=.208$ ,  $p<.01$ ), 민감성( $\beta=.328$ ,  $p<.001$ )이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민감성이 높아지면 피부타입관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민감성,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5〉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beta$	t	p	
한국	(상수)	.593	.192		3.094	.002	
	피부상태	.065	.054	.070	1.210	.228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031	.047	-.038	-.653	.514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449	.051	.520	8.832***	.000
		피부결잡티	.410	.076	.417	5.399***	.000
		민감성	-.049	.057	-.061	-.854	.394
F=58.092*** $p<.001$ $R^2=.627$							
중국	(상수)	1.074	.232		4.622	.000	
	피부상태	.072	.056	.081	1.289	.199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007	.054	-.009	-.139	.890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233	.060	.240	3.860***	.000
		피부결잡티	.300	.067	.311	4.477***	.000
		민감성	.138	.046	.194	2.988**	.003
F=28.772*** $p<.001$ $R^2=.373$							

\*\*  $p<.01$ , \*\*\*  $p<.001$

위의 〈표 4-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설명력은 62.7%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58.09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520$ ,  $p<.001$ ), 피부결잡티( $\beta=.417$ ,  $p<.001$ )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가 높아지면 생활습관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설명력은 37.3%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28.77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240$ ,  $p<.001$ ),

피부결잡티( $\beta=.311, p<.001$ ), 민감성( $\beta=.194, p<.01$ )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민감성이 높아지면 생활습관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피부결잡티, 수분탄력성, 민감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6〉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피부관리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beta$	t	p	
한국	(상수)	.609	.176		3.469	.001	
	피부상태	.058	.049	.065	1.184	.238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008	.043	-.011	-.194	.846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429	.046	.517	9.226***	.000
		피부결잡티	.402	.070	.425	5.782***	.000
		민감성	-.031	.052	-.041	-.597	.551
F=67.806*** $p<.001$ $R^2=.662$							
중국	(상수)	.846	.204		4.137	.000	
	피부상태	.072	.049	.086	1.470	.143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019	.047	.023	.394	.694	
	피부인식	수분탄력성	.267	.053	.289	5.023***	.000
		피부결잡티	.244	.059	.266	4.137***	.000
		민감성	.189	.041	.279	4.655***	.000
F=41.872*** $p<.001$ $R^2=.464$							

\*\*\*  $p<.001$

위의 〈표 4-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피부인식이 피부관리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설명력은 66.2%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67.806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피부관리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517, p<.001$ ), 피부결잡티( $\beta=.425, p<.001$ )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가 높아지면 피부관리행동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설명력은 46.4%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41.87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피부관리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beta=.289$ ,  $p<.001$ ), 피부결잡티( $\beta=.266$ ,  $p<.001$ ), 민감성( $\beta=.279$ ,  $p<.001$ )이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민감성이 높아지면 피부관리행동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수분탄력성, 민감성, 피부결잡티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3>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차이는 피부관리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 V. 결론 및 논의

### 5.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여성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이 선호식품에 따라 피부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피부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한국 여성과 중국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기술한다.

#### 첫째,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어떠한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각 나라 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각국 여성들의 식습관, 선호식품을 조사한 분석한 결과, 가설은 채택되었다.

한국여성은 채식, 중국여성은 육식 비중이 매우 높았고, 양국의 여성들은 각 나라의 음식을 선호했다. 한국여성의 채식 재료는 곡류, 과일류와 나물류, 버섯류, 중국여성은 야채류, 곡류를 많이 먹으며, 한국여성은 돼지고기를, 중국여성은 소고기를 즐겨먹었다. 중국여성이 한국여성보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섭취가 더 많았고, 한국여성은 비타민, 녹차커피, 음료섭취가 중국보다 많았다. 또한 자극성고열량음식은 중국이 높았고, 한국여성은 미용음식을 추구하는 경향이였다.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 및 선호식품은 각 나라 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에 선호식품이 미치는

## 영향은 어떠한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은 선호식품에 따라 그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여성은 자신의 피부상태를 중성, 지성, 복합성, 건성, 중국여성은 지성과 복합성이라고 하여, 중국이 한국보다 지성, 복합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높았으나, 피부상태에 대한 만족정도는 한국보다 중국여성이 더 높았다. 피부상태 영향요인으로는 자연적인 노화, 생활습관 등을 들었으나 양국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여드름 등 피부알러지가 생기는 정도와 민감성피부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한국여성이 중국보다 더 높았다. 자외선 차단제나 정기적 피부관리, 식이요법 등 피부타입별 피부관리 등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한국이 중국여성보다 더 높았다.

한국여성은 중국여성보다 채식의 경우 중성, 육식의 경우에 지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한식이 중성음식인 반면, 중식은 지성음식이라고 인식하였다. 건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한국여성은 해조류를, 중국여성은 해조류와 곡류를 많이 섭취했다. 중국여성은 지성피부라고 인식하는 경우, 나물류, 예민성인 경우 버섯류를 즐겨먹으며, 육식 식재료 섭취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국여성은 곡류섭취가 피부상태에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버섯류는 피부상태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은 중국음식보다 양식이 피부상태에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중국여성은 식습관, 즐겨 먹는 음식,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에 따라서 피부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은 채식의 경우보다 특별히 가리지 않는 식성의 경우에 민감성피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중국여성은 채식의 경우에 특별히 가리지 않는 경우보다 더 피부결잡티, 민감성피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국여성은 양식이 수분탄력성과 민감성피부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여성은 민감성피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은 민감성피부의 경우에 야채류보다 과일류를 더 섭취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여성은 모두 육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인식은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여성은 음식에 따라 피부상태가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은 식습관에 따라 피부관리행동이 달라지는 경향이 적었으나, 중국여성은 채식을 하는 경우가 특별히 가리지 않는 경우보다 더 피부관리행동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여성은 중식을 즐겨먹는 경우에 전문적 관리를 받는 경향이 높았고, 중국여성은 즐겨먹는 음식에 따라 화장품사용, 전문적 관리, 생활습관 등 피부관리행동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여성은 육식 식재료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의 차이가 없었으나, 중국여성은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먹는 경우가 전문적 관리를 받는 경향이 높았다.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에 따른 피부인식은 선호식품에 따라 그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이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차이는 피부관리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여성은 예민성피부의 경우에 화장품사용과 전문적 피부관리 경향이 높았으나, 중국여성은 피부유형에 따른 화장품사용과 전문적 피부관리 경향은 차이가 없었다.

한국여성은 피부상태가 좋을수록 화장품 사용, 전문적 관리, 피부타입관리, 생활습관, 피부관리행동에 적극적이거나, 중국여성은 피부상태가 약간 나쁜 경우보다 매우 좋은 경우에 피부타입관리에 적극적이었다. 단 한국여성은 피부상태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경우보다 만족하는 경우가, 더 적극적이었고, 중국여성은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 전문관리에 적극적이었고, 피부타입관리, 피부관리행동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와 매우 만족하는 경우에 더 적극적이었다. 피부타입관리

에는 만족하는 경우에, 그리고 피부관리행동 전체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에 더 적극적이었다.

한국여성은 피부타입에 따라 피부관리행동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중국여성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피부타입관리, 자연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생활습관, 피부관리행동에 적극적이었다.

한국과 중국여성은 모두 자신의 피부에 대한 인식이 클 경우에 피부관리행동이 적극적이었다.

한국여성은 수분탄력성과 피부결잡티가 많은 경우 화장품사용과 전문적 관리 그리고 피부타입관리가 많고, 중국여성은 민감성피부와 수분탄력성 그리고 피부결잡티가 많은 경우에 피부타입관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은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가 많아질수록, 중국여성은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 그리고 민감성 피부일수록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여성은 피부인식 중 수분탄력성, 피부결잡티가 많아지면 피부관리행동이 적극적이고, 중국여성은 수분탄력성, 민감성, 피부결잡티가 많아질수록 피부관리행동이 적극적이므로써, 한국과 중국여성의 피부인식 차이는 피부관리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식습관, 그리고 선호식품과 피부와의 관계를 연구한 이전의 결과의 연장선상의 결과들이나, 이제까지의 피부와 식습관 관련 연구는 식습관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식습관을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밖의 피부에 관련한 연구는 피부인식에 관련한 연구, 피부노화인식 관련 연구, 피부건강관리 관련 연구, 피부미용 관련연구, 피부문제에 관련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와 같이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이 선호식품에 따라 피부인식 및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학술적, 실무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2 논의

더 많고 넓은 계층의 여성 표본을 통한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피부인식과 피부관리행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제까지 나의 대학원 과정을 가르쳐주신 이준숙 교수님과 김현정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장으로 인연을 시작한 이후 내가 논문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나의 곁에서 오랜 시간동안 세세하게 논문작성을 지도해주신 명광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오랜 유학생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해주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깊이 머리 숙여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를 마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가오인(2012), 중국 일부 여대생의 피부관리 지식 및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병남(2006). 한국음식의 글로벌화 전력. 『논문집』 1(24),5-30.
- 강병서, 행렬과 SPSS/PC 이용 다변량통계분석, (서울 : 학현사, 1997), p.425.
- 강지영(2013), 젊은 여성의 식습관이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정(1996), 흡연과 피부표면 수분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곽하나(2011). 피부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상태 및 건강실천행위 조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피부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pp.18-19.
- 구슬, 박경(2013), 성인의 외식 빈도와 관련된 식습관 및 생활습관 요인 분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42(5), pp.705~712
- 국홍일(1993), 피부병과 관리요령, 건강소식 10, p40
- 김금란(2010), 피부관리가 40세 전후여성의 안면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남(1982), 식습관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5. pp194-201.
- 김기연 외(1997), 피부관리학1, 수문사
- 김명숙(2009), 이론과 실제 피부관리학, 현문사
- 김복희(1998), 여성의 피부건강관련요인, 대구한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08), 대학생의 피부건강관리행동과 식생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심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수(2013), 여고생의 피부상태 관심도 및 만족도에 따른 피부건강교육의 필요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외(1991), 한국인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16권 1호
- 김정희, 정원정(1999), 여대상들의 피부요형에 따른 식이섭취 실태조사 및 혈장 생화학적 성분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4(1): pp. 20-29
- 김종규, 박봉선, 김중순(2011), 젊은 여성의 식습관 및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피부건강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2호
- 김주현, 김미정, 오현경, 장문정, 김선희(2007), 한국인 상용 과일과 채소의 계절별 무기질 함량변화, 동아시아시생활학회지, 17(6), pp. 860~875
- 김해남(2000), 기초피부관리학, 정담출판사
- 명광주(2006), 아트워크 양식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성(2010).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용교육 실태 조사 및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 박봉선(2011), 女性들의 生活習慣과 顔面 皮膚狀態와의 關聯性 研究,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배, 라영선, 권등극(1999), 호텔외식산업 식음료관리론, 백산출판사, 서울
- 박옥향(2012), 생애주기별 자각하는 피부상태와 피부관리행태,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장혁(2012). 식습관 특성이 한식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동하(2007), 피부구조와 기능, 누리미디어
- 배수현(2003),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련행위와 사회 심리적 건강과의 관련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재균(2015), 일부 중국여성들의 피부상태와 피부건강관리행동과의 관련성,

-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현(2010), 대구지역 일부 중학생의 식습관 및 식품기호도, 계명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2),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조사부문
- 보건복지부(2003), 한국인의 주요 상병 및 건강행태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부문 심층분석결과
- 서정민(2011). 여대생의 피부미용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성신여자  
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효진(2015), 근대 이후 한국인의 식생활 변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식  
품영양학과 박사학위논문
- 양미영(2009), 수면 및 식습관이 여성의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완근(2016), 중국대학생,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 그리고 한국대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차이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여문비(2012),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따른 식생활 변화,  
명지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소패(2014),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의 피부상태, 피부관리 인식 및 행동비교,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성, 배현숙(2000), 신 피부관리학, 가림출판사
- 이나래(2007). 한식 상차림의 세계화 구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선(2001), 성인여성의 영양지식 및 식습관이 안면피부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2010), 여대생의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관리와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경 외(1998), 피부영양학, 정담출판
- 이순희, 이경옥(2011), 미용전공 고등학생의 식습관과 피부건강관리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2:47-61
- 이승자, 박 용(2011), 여성의 연령에 따른 외모관심도와 피부인식 및 피부 관

- 리행동,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2(1), p.101-112.
- 이은숙(2009), 세안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들의 피부관리 실천행위와 피부 상태에 미치는 효과,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05), 직장여성들이 피부미용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13), 중국소비자의 피부미용관심도와 한국화장품 선호도,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옥, 정소연, 홍금주(2016),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추구 성향에 따른 영양 지식수준 및 식품기호도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1(1), pp.33~41
- 이정학(2007), 호텔경영의 이해, 기문사
- 이태화(1990),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한웅, 김기연, 김혜경(2010), 중국 미용관련 법률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8 No.3
- 이희숙, 김혜영(1995),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8권 12호
- 임길희(2008).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조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희(2012), 20대~30대 여성등의 MAKE-UP 인식조사와 MAKE-UP방법에 따른 피부상태변화연구,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옥(2005). 대학생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에 관한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복경(1997), 채식을 하는 비구니 스님의 영양섭취 실태 및 심혈관질환 관련인에 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서일, 마케팅 조사론,(서울:학현사, 1997) 3판, pp.479-489.
- 최미경(2000). 충남 일부지역의 자취와 자택거주 대학생의 식습관과 영양섭취 실태조사. 「대한영양사회학술지」, 6(1), 9-16.

- 최미선(2005),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안면피부 외관상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선(2005), 대학생의 식습관에 따른 체성분변화화 피부상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정은희, 현태선(2002). 충북지역 아동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과 기호도,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4),399-410
- 최정숙(1997). 여성의 기호성과 피부 관리 습관에 따른 피부상태의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1), pp.241-258.
- 최종원(2018), 여성의 피부건강관리 인식과 행위실태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청(2004). 한·중·일 문화비교 : 세 나라의 음식문화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리(2017), 피부에 대한 인식이 세안제 구매행동 및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ZHENG WEI(2018), 지역에 따른 중국인의 식습관 특성이 한국음식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국외문헌

- Adchannel(2004), 소비자프로파일 연구
- Antoniou et al.,(2010), Antoniou, C., Kosmadaki, M. G., Stratigos, A. J., & Katsambas, A. D. (2010). Photoaging: prevention and topical treatments.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Dermatology, 11(2), 95-102.
- Baumann(2006), Baumann, L. (2006). A new system for classifying skin types. US Dermatology Review, 2006(2), Reference section, 1-3.
- Boelsma, E., L. P. L. van-de-Vijver, R. A. Goldbohm, I. A. A.
- Draelos,Z.D.(2006), Concepts in a multiprong approach to photoaging.

SkinTherapyLetter11:1-3.

- Gale Group(2000), The gender gap : if you're a vegetarian, odds are you're a woman, Why?  
[http://articles.findarticles.com/p/articles/mi\\_m0820/is\\_n210/ai\\_16019829](http://articles.findarticles.com/p/articles/mi_m0820/is_n210/ai_16019829)
- Jung-Soon Han(2019), Body Mass Index, Stress, and Dietary Habits of Women in their early 20s and late 20s, Asian J Beauty Cosmetol 2019; 17(3): 365-373
- Klöpping-Ketelaars,H.F.J.Hendriks,and L.Roza. (2003), Human skin condition and its associations with nutrientconcentrations in serum anddiet.AmericanJournalofClinicalNutrition77:348-355
- Lee et al .,(2013), A study on knowledge and ac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 skin health ca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 19: 732-738
- Myerson, L.,(1971.) Somatopsychology of Physical Disability In W.M, Cruickshank(Eds)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1-74,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ark(2009), Dietary habits, body weight satisfaction and eating disorders according to the body mass index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yungnam province.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 19: 891-908
- Shim et al .,(2013), Association between picky eating behaviors and growth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46: 418-426

## 부 록

# 한국어 설 문 지 1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저의 석사학위 논문인 ‘한국과 중국여성의 식습관이 피부인식과 피부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번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의 실제상황에 맞춰 솔직하게 해당문항별로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연구결과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지도교수 명 광 주  
석사과정 유 나  
sifumimi@naver.com

## <1. 당신의 식습관 및 선호 식재료, 선호 성향 측정>

1. 당신의 식습관은?

- ① 채식      ② 육식      ③ 특별히 가리지 않음

2. 당신이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은?

- ① 한식      ② 중식      ③ 양식      ④ 기타

3. 당신이 즐겨먹는 채식 식재료는?

순서대로 번호를 골라서 써주세요.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① 감자, 당근, 연근, 양파, 오이, 고추, 쑥갓, 호박, 가지, 무, 고구만, 샐러리, 파슬리, 시금치, 피망, 배추 등 야채류
- ② 쌀, 보리, 찹쌀, 현미, 울무, 콩, 팥, 조 등 곡류
- ③ 사과, 배, 바나나, 복숭아, 수박, 토마토, 귤, 오렌지, 딸기, 키위, 석류, 멜론, 포도, 참외 등 과일류
- ④ 김, 다시마, 미역, 톳, 파래, 청각, 우뚝가사리 등 해조류
- ⑤ 송이버섯, 팽이버섯, 싸리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달걀버섯 등 버섯류
- ⑥ 고사리, 두릅, 갯잎, 냉이, 고들빼기, 도라지, 더덕, 연근, 토란대, 취나물, 미나리, 머위, 달래, 질경이, 씀바귀, 비름 등 나물류

4. 당신이 즐겨먹는 육식 식재료는?

순서대로 번호를 골라서 써주세요.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① 소고기    ② 돼지고기    ③ 양고기    ④ 닭고기    ⑤ 생선    ⑥ 햄, 소시지

## 5. 당신의 음식 성향은?

구분	음식 성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잡곡밥보다 흰 쌀밥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유를 꼭 챙겨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비타민제를 꼭 챙겨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녹차, 커피, 음류 등을 즐겨 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2. 당신의 피부인식 측정>

1. 당신의 피부유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건성    ② 중성    ③ 지성    ④ 복합성    ⑤ 예민성

2. 당신은 자신의 피부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약간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다.    ⑤ 매

우 좋다.

3. 당신의 피부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 ①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 ② 만족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4. 당신의 현재 피부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습관(식습관) ② 자연적인 노화(연령의 증가) ③ 스트레스  
④ 환경오염 물질(메세먼지, 꽃가루 등) ⑤ 기타

5. 당신의 피부인식은?

구분	음식 성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피부가 촉촉한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피부가 탄력있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피지가 많은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피부에 잡티가 많은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피부에 색소침착(기미)이 많은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피부에 모공이 큰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7	피부에 주름이 많은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편입니까?					
9	얼굴이 민감한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피부 트러블(알러지)이 잘 생기는 편입니까?	①	④	③	④	⑤

### <3. 당신의 피부관리행동 측정>

구분	음식 성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외출 후 화장을 지우고, 세안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2	집에서 기초화장품으로 간단히 피부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①	②	③	④	⑤
4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피부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기적으로 피부관리실, 병원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방법을 바꿔서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피부 건강 관리를 위해 식이 요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마사지 시 지나친 자극은 피부를 예민하게 하므로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때를 미는 것은 피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으로 피부건강을 가꾼다.	①	②	③	④	⑤
11	피부건강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삼간다.	①	②	③	④	⑤
12	피부건강을 위해 지방이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줄인다.	①	②	③	④	⑤
13	피부건강을 위해 금주, 금연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피부 건강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인스턴트 음식을 줄인다.					
15	평소 피부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 <4. 당신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세~25세    ③ 26세~30세    ④ 31세 이상

2.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 ① 한국    ② 중국

4. 귀하의 직업은?

-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무직    ④ 주부

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 재학/졸업    ③ 대학생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이상

6.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단위:만원)

- ① 200미만    ② 200이상-400미만    ③ 400이상-600미만    ④ 600이상

감사합니다

## 중국어 설문지2

您好！

本问卷旨在研究我的学位论文《韩国和中国女性的饮食习惯对皮肤认知和皮肤管理行为的影响》。

调查结果根据《统计法》第33条(密码)和第34条(统计工作者义务)进行严格保密。对问卷的所有回答和个人事项都将以彻底的无记名方式处理，除统计分析的目的之外，绝不用于其他方面使用。问卷没有正确答案，请您根据自己的真实情况如实填写。

如果您对本研究或对研究结果有疑问，请通过以下联系方式咨询，我将竭诚给予答复。

再次感谢您参与问卷调查。

2020年12月  
汉城大学 艺术研究院  
美容艺术系  
指导教授：明光周  
研究员：刘娜  
sifumimi@naver.com

1. 您的饮食习惯是？

- ① 素食      ② 肉食      ③ 没有特别倾向

2. 您平时喜欢吃的食物是？

- ① 韩餐      ② 中餐      ③ 西餐      ④ 其他

3. 您喜欢吃的素食食材是？

请按顺序选择号码填写.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① 土豆, 胡萝卜, 莲藕, 洋葱, 西红柿, 黄瓜, 辣椒, 茼蒿, 南瓜, 茄子, 萝卜, 红薯, 芹菜, 香芹, 菠菜, 青椒, 白菜等 蔬菜类

② 大米, 大麦, 糯米, 糙米, 薏米, 大豆, 红豆, 荞等 谷类

③ 苹果, 梨, 香蕉, 桃子, 西瓜, 橘子, 橙子, 草莓, 猕猴桃, 石榴, 哈密瓜, 葡萄, 香瓜等 水果类

④ 紫菜, 海带, 裙带菜, 鹿尾菜, 海青菜, 松藻菜, 石花菜等 海藻类

⑤ 松茸, 金针菇, 扫把菇, 平菇, 木耳, 鸡蛋菇等 蘑菇类

⑥ 蕨菜, 刺老芽, 苏子叶, 芥菜, 苦菜, 桔梗, 沙参, 莲根, 芋头茎, 马蹄菜, 水芹, 蜂斗叶, 野蒜, 车前草, 苋菜等 野菜类

4. 您喜欢吃的肉食食材是？

请按顺序选择号码填写.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① 牛肉    ② 猪肉    ③ 羊肉    ④ 鸡肉    ⑤ 鱼肉    ⑥ 火腿,香肠

5. 您的饮食倾向是？

区分	饮食 倾向	绝对不是	不是	一般	是的	非常认可
1	比较喜欢咸的食物	①	②	③	④	⑤
2	比较喜欢辣的食物	①	②	③	④	⑤
3	比起杂粮饭，更喜欢白米饭	①	②	③	④	⑤
4	比较喜欢吃面食	①	②	③	④	⑤
5	比较喜欢吃速食	①	②	③	④	⑤
6	比较喜欢吃甜食	①	②	③	④	⑤
7	比较喜欢油腻的食物	①	②	③	④	⑤
8	一定要喝牛奶	①	②	③	④	⑤
9	一定要吃维生素片	①	②	③	④	⑤
10	比较喜欢喝绿茶，咖啡，饮料等	①	②	③	④	⑤

## 〈2. 您对皮肤的认知〉

1. 您觉得您的皮肤类型是？

① 干性 ② 中性 ③ 油性 ④ 混合性 ⑤ 敏感性

2. 您认为自己的皮肤状况怎么样？

① 很不好. ② 有点不好. ③ 一般. ④ 有点好. ⑤ 很好.

3. 您对您的皮肤状态满意吗？

- ① 很不满意. ② 不满意. ③ 一般. ④ 比较满意. ⑤ 很满意.

4. 您认为对自己现在皮肤影响最大的因素是什么？

- ① 生活习惯（饮食习惯） ② 自然衰老（年龄增加） ③ 压力  
④ 环境污染物（灰尘，花粉等） ⑤ 其他

5. 您的皮肤认知？

区分	饮食倾向	绝对不是	不是	一般	是的	非常认可
1	皮肤湿润吗？	①	②	③	④	⑤
2	皮肤有弹性吗？	①	②	③	④	⑤
3	皮脂过量分泌吗？	①	②	③	④	⑤
4	皮肤上有很多杂色吗？	①	②	③	④	⑤
5	皮肤上的色素沉着（斑）很多吗？	①	②	③	④	⑤
6	皮肤毛孔粗大吗？	①	②	③	④	⑤
7	皮肤有很多皱纹吗？	①	②	③	④	⑤
8	脸上有很多痘痘吗？	①	②	③	④	⑤
9	脸部很敏感吗？	①	②	③	④	⑤
10	皮肤问题（过敏）经常发生吗？	①	④	③	④	⑤

### 〈3. 您的皮肤管理行为〉

区分	饮食 倾向	绝对不是	不是	一般	是的	非常认可
1	很注重出门回家卸妆，洗脸等个人卫生	①	②	③	④	⑤
2	在家用基础的化妆品简单进行皮肤管理	①	②	③	④	⑤
3	出门时要涂防晒霜	①	②	③	④	⑤
4	皮肤出现问题后，立即进行皮肤管理	①	②	③	④	⑤
5	定期到皮肤管理室，医院接受管理	①	②	③	④	⑤
6	根据季节的不同，变换皮肤管理的方法	①	②	③	④	⑤
7	为了皮肤健康，进行食疗	①	②	③	④	⑤
8	尽量避免按摩时过度的刺激使皮肤敏感	①	②	③	④	⑤
9	搓灰（污垢）有助于管理皮肤的健康	①	②	③	④	⑤
10	有规律的生活和充足的睡眠使皮肤健康	①	②	③	④	⑤
11	为了皮肤健康，尽量避免刺激性食物	①	②	③	④	⑤
12	为了皮肤健康，减少含有脂肪或糖分的食物摄取	①	②	③	④	⑤
13	为了皮肤健康，戒酒戒烟	①	②	③	④	⑤
14	为了皮肤健康，减少速食食品	①	②	③	④	⑤
15	平时为了皮肤健康，吃维生素	①	②	③	④	⑤

#### 〈4. 您的一般统计事项〉

1. 您的年龄是？

- ① 未满20岁 ② 20~25岁 ③ 26~30岁 ④ 31岁以上

2. 您是否结婚？

- ① 未婚 ② 已婚

3. 您的居住地区是？

- ① 韩国 ② 中国

4. 您的职业是？

- ① 学生 ② 公司职员 ③ 无业 ④ 家庭主妇

5. 您的最终学历是？

- ① 高中毕业 ② 大专在校/毕业 ③ 本科在校/毕业  
④ 研究生在校以上

6. 您的月平均收入是？（单位：元）

- ① 12000元 以下 ② 12000~24000元 ③ 24000~36000元  
④ 36000元 以上

非常感谢！

## ABSTRACT

The Effects of the Eating Habits of Korean and Chinese  
Women on their Skin Perception and Skin Care  
Behavior  
– Skin Perception and Skin Care According to  
Preferred Food –

Liu, Na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ating habits of Korean and Chinese women affect their skin perception and skin care behavior according to their preferred food. Hence,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analysis through previous academic research as well as an empirical research through a survey questionnaire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ow are Korean and Chinese women's eating habits and preferred food?**

Korean women had a very high proportion of vegetarian diet while Chinese women had a very high proportion of meat consumption, and

women in both countries preferred each of their country's own food. Korean women consumed grains, fruits and vegetables, and mushrooms for vegetarian ingredients, Chinese women ate many vegetables and grains. Korean women enjoyed eating pork, while Chinese women enjoyed eating beef. Next, Chinese women consumed more white rice, flour food, and fatty food than Korean women, and Korean women consumed more vitamins, green tea coffee, and beverages than Chinese women. In addition, Chinese women ate more high-calorie, pungent food, while Korean women tended to pursue beauty food. The eating habits and preferred food of the Korean and Chinese women were varied depending to the influence of each country's environment.

**Second, how does preferred food affect Korean and Chinese women's skin perception according to their eating habits?**

Korean women said they had neutral, oily, combination, and dry skin, while Chinese women said they had oily and combination skin. More Chinese women than Korean women tended to perceive their skin to be oily and combination, but more Chinese women than Korean women were satisfied with their skin conditions. Natural aging and lifestyle were mentioned as factors influencing skin condition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n women had a higher tendency to think their skin to have acne and allergies and be sensitive, and had more interest in and behavior of skin care by skin type such as sunscreen, regular skin care, and diet than Chinese women. Korean women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vegetarian diet as neutral and meat diet as oily than Chinese women, and considered Korean food as neutral food and Chinese food as oily food. If they perceived their skin as dry, Korean women consumed more seaweed while Chinese

women consumed much more seaweed and grains. Chinese women enjoyed eating green herbs when they perceived their skin to be oily and mushrooms if their skin was sensitiv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intake of meat food.

Korean women perceived that grain consumption was good for the skin while mushrooms were not. In addition, Korean women thought western food was worse for skin conditions than Chinese food, but Chinese women perceiv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kin according to the eating habits, favorite food, and favorite meat ingredients. Korean women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ir skin to be sensitive if they were not selective in their diet than vegetarian, and Chinese women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ir skin to have blemishes and be sensitive if they were vegetarian than no selective diet.

Korean women perceived that western food affected moisture elasticity and sensitive skin, and Chinese women perceived that they affected sensitive skin. Next, Korean women with sensitive skin ate more fruits than vegetabl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ce difference in skin percep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women according to meat food. Both Korean and Chinese women perceived that their skin condition varied depending on their food intake. Korean women were less inclined to change their skin care behavior according to their eating habits, but Chinese women were more active in their skin care behaviors if they were vegetarian than if they were not selective. Korean women tended to receive more professional skin care if they enjoyed Chinese food,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nese women's skin care behaviors such as skin care product use, professional care, and lifestyle according to the food they enjoyed. There was no difference in Korean women's skin care behavior according to meat ingredients, but Chinese women tended to receive more professional skin care if they ate chicken

rather than beef. Finally, Korean and Chinese women's skin perception according to their eating habits was affec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preferred food.

**Third, how do Korean and Chinese women's skin perception affect their skin care behaviors?**

While Korean women with sensitive skin had a higher tendency to use skin care products and receive professional skin care, Chinese women did not show any difference in using skin care products and receiving professional skin care according to their skin types. Korean women were more active in using skin care products, receiving professional care, skin type care, lifestyle habits, and skin care behaviors if their skin was in a better condition, but Chinese women were more active in skin type care when their skin was in a very good condition than in a slightly bad condition. However, Korean women were more active in their skin care when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skin condition than they were very satisfied with their skin condition, and Chinese women more actively received professional skin care when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skin condition. Overall, Chinese women were also more active in skin care by type and skin care behavior when they were satisfied or very satisfied with their skin conditions. Also, they were more active in skin care by type when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skin conditions and in their entire skin care behavior when they were very satisfied with their skin conditions. While Korean women's skin care behavior was not affected by skin type, Chinese women were active in skin care by type if they were stressed and in lifestyle habits and skin care behavior if they thought as natural aging.

Both Korean and Chinese women had an active skin care behavior when

they had a high perception of their skin. More Korean women tended to use skin care products, receive professional skin care, and do skin care by type if they had moisture elasticity and many blemishes on their skin, while Chinese women had more skin care by type if they had sensitive skin, moisture elasticity, and many blemishes on their skin. Korean women perceived that lifestyle affected their skin if their skin had more moisture elasticity and skin blemishes, while Chinese women perceived that lifestyle affected their skin if they had more moisture elasticity, skin blemishes, and had sensitive skin. In addition, Korean women were more active in their skin care behavior if moisture elasticity and skin blemishes increased in their skin perception, while Chinese women were more active in their skin care behavior if their moisture elasticity, sensitive skin, and skin blemishes increased; thus, this study has proven that the difference in Korean and Chinese women's skin perception affected their skin care behavior differently.

The above study results are an extension of the previous study results on the relationship among eating habits, preferred food, and skin. However, most studies in South Korea and China on skin and eating habits so far have focused on comparing the eating habits, and other studies on skin have been on skin perception, skin aging perception, skin health care, skin beauty, and skin problems. Since there has been no concrete study on the effect of eating habits of Korean and Chinese women on their skin perception and skin care behavior according to preferred food, this study give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Keywords】** Eating Habits, Preferred Food, Skin Perception, Skin Care Behavior, Skin Types